

안양시 청년 종합실태조사

2017년 12월



안양시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I. 조사목적	1
II. 조사내용	1
III. 조사 설계	2
IV.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
V. 응답자 특성	3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I.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7
II.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8
III. 생활안정	8
IV. 문화 활성화	9
V. 현안 및 정책인식	9
VI. 정주의식	10
VII. 사회, 정치적 인식과 참여	11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I.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15
1. 필요시 취업정보	15
2. 취업성공요소	16
3. 구직활동(취·창업)	18

4. 직업관련 진로결정	21
5. 진로 적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요소	24
6. 진로방향	26
7. 진로위한 노력	31
8. 취업준비,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37
9. 취업활동 경험 및 내용	38
10. 아르바이트 경험 및 내용	42
11. 직장경험	49
II.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53
1. 현 주거 현황	53
2.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관련 정책	58
3. 통학 또는 통근 지역	60
III. 생활안정	63
1. 월평균 소득액 및 지출액	63
2. 생활에 필요한 비용 충당 방법	68
3. 학업에 필요한 비용(등록금 등) 충당 방법	69
4. 부채(빚)현황	71
5. 현재 포기 및 향후 예상되는 불가능한 사항	73
6. 결혼에 대한 생각	75
7. 적정 월급 수준	76
8. 부모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	78
IV. 문화 활성화	81
1. 여가 및 문화활동	81
V. 현안 및 정책인식	88
1. 청년들의 어려움과 삶 만족도	88
2. 청년정책 인지	90

VI. 정주의식	100
1. 출생 및 거주 관련 현황	100
2. 안양시 정주의식	103
VII. 사회, 정치적 인식과 참여	110
1. 자신감	110
2. 사회인식	113
3. 정치적 관심도	129

제4장 제언

제언	135
----------	-----

◆ 부록 : 설문지

제1장

조사개요



I. 조사목적

1. 조사배경

- 최근 청년일자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고충 등 다양한 청년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시점으로 다방면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조사목적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수립을 위해 현재 안양시 청년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 청년 세대만이 갖는 특징과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안양시 청년들의 특징이 청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II. 조사내용

- 안양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일반사항, 능력개발 및 일자리,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현안 및 정책 인식, 정주의식, 사회·정치인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함
- 안양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을 위한 8개 분야의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조사항목	세부내용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 등
능력개발 및 일자리	구직활동 경험, 구직활동 기간, 진로결정 시기, 진로와 적성, 취업 교육프로그램 수요, 구직활동시 애로사항, 취업여부, 급여수준 등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부모님과 동거여부, 현재 주거형태, 주거비 조달방법, 필요한 주거정책 등
생활안정	월평균 소득 및 지출, 생활비 충당 방법, 부채 여부, 부채 원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월급수준 등

조사 개요

조사항목	세부내용
문화 활성화	여가생활, 원하는 문화활동, 청년층을 대변하는 문화 등
현안 및 정책 인식	청년으로서 어려움, 결혼에 대한 인식,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청년수당(배당)에 대한 생각 등
정주의식	출생지, 거주기간, 안양시 정주여부, 안양시 정착 및 이주에 대한 주요 이유 등
사회·정치인식	주요 생애 과업에 대한 자신감, 사회인식, 정치인식 등

III. 조사 설계

조사대상	안양시 거주 청년(19세~34세)
조사지역	안양시 2개 구(동안구, 만안구)
표본수	총 600명
표본추출	-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 - 기타 학력별, 직업 분포 등을 고려
조사방법	전화, 면접, 온라인 조사 등
조사기간	2017년 11월 10일 ~ 12월 10일
조사기관	(주) 현대리서치연구소

IV.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자료의 전산화
- 전산화된 자료(Raw Data)는 통계패키지 SPSS for win을 활용하여 분석함

V.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성별현황을 보면 남자 52.0%, 여자 48.0%임
-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19~24세가 36.5%, 25~29세가 32.7%, 30~34세가 30.8%임
- 응답자의 53.8%는 동안구에 거주하며 46.2%는 만안구에 거주함
- 직업분포를 보면 학생이 47.7%, 직장인 27.0%, 무직 16.8%, 주부 8.5%로 조사됨

< 성 별 >



< 연 령 >



< 거주지 >



< 직 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600	100.0
성별	남자	312	52.0
	여자	288	48.0
연령	19~24세	219	36.5
	25~29세	196	32.7
	30~34세	185	30.8
거주지	동안구	323	53.8
	만안구	277	46.2
직업	학생	286	47.7
	직장인	162	27.0
	무직	101	16.8
	주부	51	8.5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I.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1. 취업정보, 취업성공요소

- 안양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정보는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학생 외 직장인, 무직, 주부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안양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 졸업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밖에 업무 관련 자격증, 해외 경험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2. 구직활동 및 진로 방향과 필요요소

- 안양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대학원 진학 등 학업준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지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였거나,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 부족 등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안양시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고, 대학 재학 중에 진로를 결정했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안양시 청년들 중 학생, 무직자의 경우 진로가 대부분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 및 프리랜서에 대한 의견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안양시 청년들을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양시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데, 성별, 연령별 모두 체계적인 진로상담 및 사전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 분야 멘토를 연결해주는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진로체험을 위한 인턴십 기회제공,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료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한 요소라고 의견을 제시함
- 안양시 청년들은 진로 달성을 위해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에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밖에 좋은 학점 유지, 취업준비를 위한 그룹스터디 등이 있음

3. (취업)구직활동 및 진로설정의 어려움

- 안양시 청년들의 (취업)구직활동, 진로설정에 있어 성별, 연령별, 직업별 모두 ‘과도한 스펙 경쟁’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외모, 출신 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조사 결과 요약

조사 결과 요약

- 또한,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또는 아르바이트)활동에 한계가 있고, 주거비/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임금 수준 역시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II.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1. 주거현황

- 안양시 청년들의 경우 응답자의 약 22%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양시 청년들이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로 대출이나 빚으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높고, 스스로 조달하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안양시 청년들은 대부분 안양시 내에서 통학 및 통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주거관련 정책

- 안양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관련 정책으로는 응답자 특성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청년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청년셰어하우스 정책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III. 생활안정

1. 소득과 지출, 부채

- 안양시 청년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4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이 31.2%로 나타남. 그리고 50만원~100만원 미만이 24.1%를 차지함
- 안양시 청년들의 월평균 지출액을 보면 50만원 미만이 43.2%로 가장 높은 가운데, 100만원~200만원 미만 35.1%, 50만원~100만원 미만 20.4% 순으로 나타남
- 안양시 청년들은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 형제, 친척의 도움이나 직장 및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안양시 청년들의 부채보유 여부는 응답자 중 약 11%로 낮음

2. N포, 결혼에 대한 인식

- 안양시 청년들은 내 집 마련, 출산, 결혼, 연애, 안정적 일자리 등이 향후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안양시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안양시 청년들이 N포 세대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월급수준에 대한 의견은 월 200만원~3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500만원~650만원 미만 순으로 응답하였음

IV. 문화 활성화

1. 여가 및 문화생활 현황

- 안양시 청년들이 자주 즐기는 여가생활에는 여행 및 관광(여자, 25세 이상),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공연 관람, 휴식 및 수면 등이 응답비율이 높음
- 안양시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청년층을 대변하는 문화는 모바일문화 > 대중문화 > 취업준비문화 > 축제문화 > 혼족문화 > 덕후문화 순으로 정리됨

2.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

- 안양시 청년들은 19~24세에서 3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화생활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선호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영화, 영상 관련 활동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고, 그 밖에 음악, 미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V. 현안 및 정책인식

1. 청년들의 어려움과 삶의 만족도

- 안양시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비 마련 23.9%,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 14.4% 순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요약

- 안양시 청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 45.2%, 만족 25.7%, 불만족 25.5% 순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이 유사한 수준임

2. 청년정책

- 안양시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취·창업 및 일자리 제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29.7%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생계지원 프로그램 16.4%, 문화생활 지원 프로그램 13.8%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
- 안양시 청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 대한 응답결과 생활비 지원정책, 주거 지원, 학비, 등록, 용자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안양시 청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것에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에는 졸업유예자 41.2%, 취약계층 28.2%, 2순위에는 예비창업자 20.1%, 장기(1년 이상)실업자 19.2%로 여성 미취업자 17.4%로 나타남
- 안양시 청년들은 청년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안양시는 정책홍보에 좀 더 노력해야함
- 안양시 청년들은 생활지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형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Ⅵ. 정주의식

- 안양시 청년들의 안양시 출생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약 75% 이상이 안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성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안양시에 거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직장 및 학교, 부모님의 의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응답자 중 56.8%가 안양시에 5년 미만으로 거주하였고, 20년~25년 미만이 14.6%, 5년~10년 미만이 12.2%임
- 안양시가 살기 좋은 곳인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통이다 63.7%와 그렇다 15.4%를 합하여 79.1%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년 이내 안양시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 중 안양시를 떠나고 싶은 이유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계속 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거수준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함

VII. 사회, 정치적 인식과 참여

1. 사회적 인식

- 안양시 청년들은 4가지 항목(내 집 마련,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육아, 취업)에서 모두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안양시 청년들은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님의 지위 보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변사람에 대해 신뢰한다, 협력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견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그러나 소득, 노동시간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보임
- 안양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현재 또는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세대 자체가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청년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안양시 청년들은 대체로 해외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지만, 해외이주민들에 의해 한국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도 높게 가지고 있음

2. 정치적 인식

- 안양시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을 조사해본 결과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35.7%, 별로 관심이 없다 33.9%, 전혀 관심이 없다 28.6%, 매우 관심이 있다 1.8%로 나타남
- 안양시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정치참여 기회가 있는 경우 참여 의사가 있다가 56.1%로 높게 나타남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조사 결과 분석

I.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1. 필요시 취업정보

문1	귀하의 주변에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	---------------------------------

- 주변에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있는지에 대하여 ‘없다’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이 14.2%로 전체 응답자의 60.1%가 주변에 필요한 정보들이 충분히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40.0%(‘그렇다’ 37.6%+ ‘매우 그렇다’2.4%)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없다	84	14.2
없다	271	45.9
그렇다	222	37.6
매우 그렇다	14	2.4
합계	591	100.0

*무응답 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43.7%)가 여자(35.9%)보다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19~24세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인식하는 비율이 53.2%인데 반해 25~29세와 30~34세는 각각 28.6%, 36.0%로 매우 낮게 나타나 연령별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임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46.4%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하는 반면, 만안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32.4%만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직업별로는 학생은 57.1%로 학생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변에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직장인, 무직, 주부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는 비율이 각각 30.2%, 21.0%, 12.0%로 낮게 나타남. 특히 무직의 경우 79.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주변에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전혀 없다	없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91	14.2	45.9	37.6	2.4
성별	남자	307	17.9	38.4	41.7	2.0
	여자	284	10.2	53.9	33.1	2.8
연령	19~24세	216	12.0	34.7	48.6	4.6
	25~29세	192	20.8	50.5	28.1	0.5
	30~34세	183	9.8	54.1	34.4	1.6
거주지	동안구	319	8.8	44.8	42.3	4.1
	만안구	272	20.6	47.1	32.0	0.4
직업	학생	282	5.0	37.9	52.1	5.0
	직장인	159	23.3	46.5	30.2	0.0
	무직	100	30.0	49.0	21.0	0.0
	주부	50	6.0	82.0	12.0	0.0

2. 취업성공요소

문2	귀하가 생각하기에 취업에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취업성공요소로 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는 것은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졸업’(33.1%), ‘업무(직종)관련 자격증’(22.9%),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17.6%)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취업성공요소 2순위로 ‘업무(직종) 관련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3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13.5%),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졸업’(11.6%), ‘외국어 능력’(11.4%)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외국어 능력	72	12.0	56	11.4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 졸업	198	33.1	57	11.6
컴퓨터 관련 자격증	49	8.2	42	8.6
업무(직종)관련 자격증	137	22.9	156	31.8
어학연수 등 해외 경험	105	17.6	49	10.0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24	4.0	66	13.5
공모전 등 수상경험	5	0.8	31	6.3
동아리활동	1	0.2	10	2.0
봉사활동 경험	2	0.3	3	0.6
인적네트워크	5	0.8	20	4.1
합계	598	100.0	490	100.0

*무응답 1순위 2명, 2순위 110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1순위) 】

- 취업성공요소에 대한 1순위 응답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남자는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졸업’이 35.2%로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고, 여자 역시 30.9%로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연령별로는 19~24세와 30~34세는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 졸업’이 각각 39.0%, 33.2%, 25~29세는 29.1%가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을 가장 중요한 취업성공요인이라 인식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응답자의 경우 30.5%가 ‘업무(직종) 관련 자격증’이 취업성공요소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만안구는 38.6%가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 졸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직업별로는 학생, 직장인, 무직에게서 주로 ‘학력 및 명성 있는 대학 졸업’이 각각 32.3%, 36.6%, 39.6%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의 경우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이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외국어 능력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 졸업	컴퓨터 관련 자격증	업무 (직종) 관련 자격증	어학 연수 등 해외 경험	인턴, 아르 바이트 등 직무 경험	공모전 등 수상 경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경험	인적 네트 워크
전체	598	12.0	33.1	8.2	22.9	17.6	4.0	0.8	0.2	0.3	0.8
성별	남자	310	17.4	35.2	9.4	23.9	7.1	3.5	1.6	0.3	1.0
	여자	288	6.3	30.9	6.9	21.9	28.8	4.5	0.0	0.0	0.7
연령	19~24세	218	11.0	39.0	13.3	27.1	0.9	6.0	1.4	0.0	1.4
	25~29세	196	7.7	26.5	8.2	24.0	29.1	2.0	0.5	0.5	1.0
	30~34세	184	17.9	33.2	2.2	16.8	25.0	3.8	0.5	0.0	0.0
거주지	동안구	321	12.1	28.3	9.0	30.5	11.2	6.5	0.9	0.0	0.6
	만안구	277	11.9	38.6	7.2	14.1	24.9	1.1	0.7	0.4	1.1
직업	학생	285	12.6	32.3	12.3	33.0	2.1	5.6	1.4	0.0	0.7
	직장인	161	14.9	36.6	3.1	18.6	21.1	3.7	0.0	0.0	1.9
	무직	101	11.9	39.6	8.9	12.9	22.8	1.0	0.0	1.0	2.0
	주부	51	0.0	13.7	0.0	0.0	82.4	2.0	2.0	0.0	0.0

3. 구직활동(취·창업)

문3	귀하는 과거 또는 현재 구직(취·창업,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구직활동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87.5%가 구직 활동경험이 없고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5%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74	12.5
없다	520	87.5
합계	594	100.0

*무응답 6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8.8%)보다 여자(16.3%)가 구직활동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에서 19.5%로 구직경험이 제일 높게 나타남.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3.7%로 구직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594	12.5	87.5
성별	남자	306	8.8	91.2
	여자	288	16.3	83.7
연령	19~24세	219	8.2	91.8
	25~29세	190	19.5	80.5
	30~34세	185	10.3	89.7
거주지	동안구	321	11.5	88.5
	만안구	273	13.6	86.4
직업	학생	286	7.3	92.7
	직장인	160	18.1	81.9
	무직	97	23.7	76.3
	주부	51	2.0	98.0

문3-1 귀하의 구직활동 기간은 모두 합쳐서 어느 정도입니까?

-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가 52.4%로 가장 높고 다음이 ‘6개월~1년 미만’이 28.6%로 나타남.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1년 미만 수준의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6개월 이내	22	52.4
6개월 ~ 1년 미만	12	28.6
1년 ~ 2년 미만	6	14.3
2년 이상	2	4.8
합계	42	100.0

*무응답 32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구체적인 구직활동 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6개월 이내’ 경험자가 남자 53.8%, 여자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개월~1년 미만’도 남자 34.6%, 18.8%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6개월 이내’ 구직활동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5~29세는 ‘6개월~1년 미만’ 구직활동 경험자가 46.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 직업별로는 학생인 경우 ‘6개월 이내’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직업군에 비해 ‘1년~2년 미만’이 2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직장인의 경우 ‘6개월 이내’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년 이상’도 11.1%로 높은 응답을 보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42	52.4	28.6	14.3	4.8
성별	남자	26	53.8	34.6	11.5	0.0
	여자	16	50.0	18.8	18.8	12.5
연령	19~24세	18	61.1	16.7	22.2	0.0
	25~29세	15	46.7	46.7	6.7	0.0
	30~34세	9	44.4	22.2	11.1	22.2
거주지	동안구	27	55.6	29.6	14.8	0.0
	만안구	15	46.7	26.7	13.3	13.3
직업	학생	21	57.1	14.3	23.8	4.8
	직장인	9	66.7	22.2	0.0	11.1
	무직	11	36.4	54.5	9.1	0.0
	주부	1	0.0	100.0	0.0	0.0

* 빈도가 적은 경우 해석 주의

문3-2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62.5%가 ‘학교재학 및 학업준비 중’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휴식이 필요함’이 22.2%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함	42	8.1
휴식이 필요함	115	22.2
학교재학 및 학업준비 중	323	62.5
본인전공과 관련된 일자리가 없음	21	4.1
취업의사 없음	12	2.3
취업할 사정이 안됨(가족 돌봄, 간호 등)	4	0.8
합계	517	100.0

*무응답 3명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서 ‘학교 재학 및 학업 준비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과 직장인이 ‘학교재학 및 학업준비 중’이 각각 84.6%,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무직과 주부는 ‘휴식이 필요함’이 각각 29.5%, 96.0%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함	휴식이 필요함	학교재학 및 학업 준비중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가 없음	취업의사 없음	취업 사정이 안됨
전체		517	8.1	22.2	62.5	4.2	2.3	0.8
성별	남자	278	11.2	13.7	67.3	5.0	2.2	0.7
	여자	239	4.6	32.2	56.9	2.9	2.5	0.8
연령	19~24세	198	9.1	5.1	78.3	4.0	3.0	0.5
	25~29세	157	10.8	28.0	51.6	6.4	2.5	0.6
	30~34세	162	4.3	37.7	53.7	1.9	1.2	1.2
거주지	동안구	278	8.3	19.4	68.0	2.9	1.4	0.0
	만안구	239	7.9	25.5	56.1	5.4	3.3	1.7
직업	학생	260	7.7	3.8	84.6	2.3	1.5	0.0
	직장인	129	4.7	26.4	62.8	5.4	0.8	0.0
	무직	78	20.5	29.5	25.6	10.3	9.0	5.1
	주부	50	0.0	96.0	4.0	0.0	0.0	0.0

4. 직업관련 진로결정

문4	귀하가 직업과 관련된 진로 결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직업관련 진로를 결정한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39.2%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26.5%는 ‘대학 재학 중’, 15.2%는 ‘고등학교 졸업이전’에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함. 그리고 ‘직장생활 중’ 진로 결정했다는 응답자 비율도 12.8%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고등학교 졸업이전	89	15.2
대학 재학 중	155	26.5
구직(취업준비) 활동 중	25	4.3
직장생활 중	75	12.8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30	39.2
잘 모름	12	2.0
합계	586	100.0

*무응답 14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진로결정 시기에 대한 성별 분석결과 ‘아직 결정하지 못함’이라는 의견이 남자 35.4%, 여자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대학 재학 중’ 진로결정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5~29세와 30~34세는 ‘아직 결정하지 못함’이 각각 43.1%, 45.5%로 나타남
- 거주지별, 직업별 모두 ‘아직 결정하지 못함’ 의견이 가장 우세한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고등학교 졸업 이전	대학 재학 중	구직 활동 중	직장 생활 중	아직 결정 못함	잘 모름
전체		586	15.2	26.5	4.3	12.8	39.2	2.0
성별	남자	302	12.6	29.1	4.3	15.6	35.4	3.0
	여자	284	18.0	23.6	4.2	9.9	43.3	1.1
연령	19~24세	215	16.3	40.9	1.9	9.8	30.7	0.5
	25~29세	195	13.8	15.4	8.2	16.9	43.1	2.6
	30~34세	176	15.3	21.0	2.8	11.9	45.5	3.4
거주지	동안구	320	21.3	30.0	2.5	9.1	34.1	3.1
	만안구	266	7.9	22.2	6.4	17.3	45.5	0.8
직업	학생	280	24.6	43.2	0.7	1.1	28.2	2.1
	직장인	155	5.8	15.5	9.7	29.0	38.1	1.9
	무직	100	11.0	10.0	4.0	23.0	49.0	3.0
	주부	51	0.0	0.0	7.8	7.8	84.3	0.0

조사 결과 분석

문4-1 귀하가 선택한 진로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입니까?

- 선택한 진로가 적성에 적합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63.4%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29.3%는 선택한 진로가 적성에 적합하다고 응답함. 다만 선택한 진로가 적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도 7.3%로 나타남
- 진로와 관련해 과반수 이상이 진로가 적성에 적합한지 모르거나 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구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97	29.3
아니다	24	7.3
잘 모르겠다	210	63.4
합계	331	100.0

*무응답 13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선택한 진로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인가에 대한 결과 ‘잘 모르겠다’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선택진로가 적성에 부합된다는 의견은 남자 22.0%, 여자 38.3%로 여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선택한 진로가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38.8%)거주자보다 만안구(15.6%) 거주자에게서 선택한 진로가 적성에 잘 맞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인 경우 40.5%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331	29.3	7.3	63.4
성별	남자	182	22.0	8.8	69.2
	여자	149	38.3	5.4	56.4
연령	19~24세	146	40.4	6.2	53.4
	25~29세	101	17.8	8.9	73.3
	30~34세	84	23.8	7.1	69.0
거주지	동안구	196	38.8	5.1	56.1
	만안구	135	15.6	10.4	74.1
직업	학생	195	40.5	4.1	55.4
	직장인	86	14.0	11.6	74.4
	무직	46	13.0	10.9	76.1
	주부	4	0.0	25.0	75.0

5. 진로 적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요소

문5	귀하는 청년들의 진로 적성을 파악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진로 적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 ‘진로상담 및 사전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분야 멘토와의 연결 지원’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한 인턴십 기회제공’이 24.7%로 나타남
- 그 외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료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12.0%, ‘진로탐방 및 견학 기회 제공’ 11.5%, ‘적성파악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9.4%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한 인턴십 기회제공	142	24.7
진로상담 및 사전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분야 멘토와의 연결지원	234	40.6
적성파악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54	9.4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료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69	12.0
진로탐방 및 견학기회제공	66	11.5
진로 분야별 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11	1.9
합계	576	100.0

*무응답 24명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성별로는 진로적성 파악을 위해 ‘진로상담 및 사전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분야 멘토와의 연결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자(36.3%)보다 여자(45.2%)가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진로적성을 파악을 위해 ‘진로상담 및 사전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분야 멘토와의 연결지원’이 25~29세가 52.1%, 30~34세는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19~24세는 ‘다양한 진로체험 위한 인턴십 기회제공’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다양한 진로체험 위한 인턴십 기회제공’이 30.8%, 만안구는 ‘진로상담 및 사전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분야 멘토와의 연결지원’이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직업별로도 학생은 ‘다양한 진로체험 위한 인턴십 기회제공’이 38.0%로 가장 높은데 반해 직장인, 무직, 주부의 경우 ‘진로상담 및 사전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 분야 멘토와의 연결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다양한 진로체험 위한 인턴십 기회제공	진로상담 및 사전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분야 멘토와의 연결지원	적성파악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료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진로탐방 및 견학기회 제공	진로 분야별 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전체		576	24.7	40.6	9.4	12.0	11.5	1.9
성별	남자	295	23.1	36.3	10.2	14.9	12.9	2.7
	여자	281	26.3	45.2	8.5	8.9	10.0	1.1
연령	19~24세	214	35.5	29.0	10.7	8.9	13.6	2.3
	25~29세	188	17.0	52.1	12.8	9.6	7.4	1.1
	30~34세	174	19.5	42.5	4.0	18.4	13.2	2.3
거주지	동안구	312	30.8	26.9	11.5	13.8	15.4	1.6
	만안구	264	17.4	56.8	6.8	9.8	6.8	2.3
직업	학생	276	38.0	24.3	11.2	9.1	14.9	2.5
	직장인	152	17.8	51.3	4.6	14.5	10.5	1.3
	무직	97	9.3	50.5	11.3	21.6	6.2	1.0
	주부	51	2.0	78.4	9.8	2.0	5.9	2.0

조사 결과 분석

6. 진로방향

문6	귀하가 생각하시는 진로의 방향은 무엇입니까?(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은 앞으로 5년 후 진로방향을 기재해 주십시오)귀하가 선택한 진로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입니까?
----	---

- 응답자의 70.5%가 ‘취업’을 진로로 설정하고 있으며, ‘창업’ 및 ‘창업, 프리랜서’가 18.7%로 조사됨

구분	빈도(명)	비율(%)
취업	359	70.5
창업	30	5.9
프리랜서	12	2.4
사회활동가	5	1.0
모르겠다	43	8.4
고려하지 않음	7	1.4
창업, 프리랜서	53	10.4
합계	509	100.0

*창업과 프리랜서 중복표기가 53명으로 문6 보기에 ‘7)창업&프리랜서→6-2로’ 추가하여 분석

*무응답 91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 66.2%, 여자 76.3%가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임. 다만 남자(6.6%)가 여자(5.0%)보다 ‘창업’을 진로로 설정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취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자 비율의 높았고, 25~29세와 30~34세는 ‘취업’ 외 ‘창업’ 혹은 ‘프리랜서’로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 비율이 19~24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직업별로는 직업군 모두에게서 ‘취업’이 높게 응답되었으나, 학생의 대다수인 82.6%가 ‘취업’으로 진로를 설정한데 반해 직장인과 무직, 주부는 그 비율이 다소 떨어짐. 특히 직장인의 경우 12.0%가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취업	창업	프리랜서	사회 활동가	모르겠다	고려하지 않음	창업, 프리랜서
전체		509	70.5	5.9	2.4	1.0	8.4	1.4	10.4
성별	남자	290	66.2	6.6	2.8	1.0	10.0	1.7	11.7
	여자	219	76.3	5.0	1.8	0.9	6.4	0.9	8.7
연령	19~24세	215	71.6	4.2	2.3	1.4	11.2	0.9	8.4
	25~29세	155	67.7	6.5	1.9	0.0	7.1	2.6	14.2
	30~34세	139	71.9	7.9	2.9	1.4	5.8	0.7	9.4
거주지	동안구	301	72.1	5.6	3.0	0.7	10.6	2.3	5.6
	만안구	208	68.3	6.3	1.4	1.4	5.3	0.0	17.3
직업	학생	282	82.6	2.8	2.1	1.1	9.9	1.1	0.4
	직장인	125	53.6	12.0	1.6	0.8	04.8	3.2	24.0
	무직	83	54.2	6.0	4.8	0.0	10.8	0.0	24.1
	주부	19	73.7	10.5	0.0	5.3	0.0	0.0	10.5

문6-1 귀하께서 취업을 고려한다면 주로 어떤 곳으로 취업을 생각하십니까?

- 취업으로 진로를 설정한 응답자 중 ‘공공기관(공기업/공사, 공단)’이 22.5%, ‘외국계 기업’ 18.3%, ‘중소기업’ 16.3%, ‘대기업’ 14.9%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13.2%로 조사됨

구분	빈도(명)	비율(%)
대기업	53	14.9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3	6.5
공공기관(공기업/공사, 공단)	80	22.5
외국계 기업	65	18.3
중소기업	58	16.3
비영리, 시민단체	2	0.6
어느 곳이든 상관없음	47	13.2
기타	27	7.6
합계	355	100.0

*무응답 4명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취업을 고려하는 응답자 중 남자는 ‘공공기관’ 26.6%, ‘대기업’ 17.0%, ‘중소기업’ 16.5%, 여자는 ‘외국계기업’ 23.4%, ‘공공기관’ 18.0% 순으로 나타났고,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는 의견이 남녀 모두 약 13% 수준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반면, 25세 이상은 ‘외국계’, ‘공공기관’을 더 선호하고 있어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외국계기업’ 21.3%, ‘중소기업’과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가 각각 17.1%, ‘공공기관’ 15.3% 순으로 나타났고, 만안구는 ‘공공기관’ 33.8%, ‘대기업’ 18.0%, ‘중소기업’ 15.1%로 거주지별 차이를 보임
- 직업별로는 학생은 23.0%가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18.7%로 나타났으며, 직장인은 ‘공공기관’이 30.3%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공공기관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무직과 주부는 외국계기업에 대한 선호가 과반 이상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대기업	정부기관 이나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공공 기관	외국계 기업	중소 기업	비영리, 시민단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음	기타
전체		355	14.9	6.5	22.5	18.3	16.3	0.6	13.2	7.6
성별	남자	188	17.0	8.5	26.6	13.8	16.5	1.1	13.3	3.2
	여자	167	12.6	4.2	18.0	23.4	16.2	0.0	13.2	12.6
연령	19~24세	152	20.4	5.3	21.1	9.9	20.4	0.7	19.7	2.6
	25~29세	104	13.5	4.8	24.0	25.0	13.5	1.0	9.6	8.7
	30~34세	99	8.1	10.1	23.2	24.2	13.1	0.0	7.1	14.1
거주지	동안구	216	13.0	5.1	15.3	21.3	17.1	0.0	17.1	11.1
	만안구	139	18.0	8.6	33.8	13.7	15.1	1.4	7.2	2.2
직업	학생	230	16.1	6.5	23.0	7.8	18.7	0.4	18.3	9.1
	직장인	66	13.6	7.6	30.3	18.2	19.7	0.0	4.5	6.1
	무직	45	15.6	6.7	15.6	51.1	2.2	2.2	2.2	4.4
	주부	14	0.0	0.0	0.0	85.7	7.1	0.0	7.1	0.0

문6-2

창업이나 프리랜서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창업이나 프리랜서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8.1%가 ‘소득

조사 결과 분석

이 높을 것 같아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어서' 19.5%, '조직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 14.3%,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서' 13.0%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	37	48.1
조직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	11	14.3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어서	15	19.5
취업이 어려워 대안으로 선택	2	2.6
자녀양육, 가사활동과 병행할 수 있어서	2	2.6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	—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서	10	13.0
합계	77	100.0

*무응답 18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창업 또는 프리랜서로 진로를 선택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남자 48.3%, 여자 47.4%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 41.7%,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어서' 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25~29세는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가 65.6%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30~34세는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와 '조직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가 각각 28.6%로 동일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어서'가 44.0%로 가장 높은데 반해 만안구는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63.5%로 과반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직업별로는 학생, 직장인, 무직은 대부분 높은 소득에 대한 기대로 창업과 프리랜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 수 (명)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	조직생활 에 엄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몰라서 할 수 있어서	취업이 어려워 대안으로 선택	자녀양육, 가사활동 병행할 수 있어서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서
전체		77	48.1	14.3	19.5	2.6	2.6	—	13.0
성별	남자	58	48.3	12.1	20.7	3.4	3.4	—	12.1
	여자	19	47.4	21.1	15.8	0.0	0.0	—	15.8
연령	19~24세	24	41.7	12.5	25.0	4.2	0.0	—	16.7
	25~29세	32	65.6	6.3	15.6	3.1	3.1	—	6.3
	30~34세	21	28.6	28.6	19.0	0.0	4.8	—	19.0
거주지	동안구	25	16.0	16.0	44.0	—	4.0	—	20.0
	만안구	52	63.5	13.5	7.7	3.8	1.9	—	9.6
직업	학생	36	58.3	11.1	22.2	2.8	0.0	—	5.6
	직장인	29	41.4	20.7	10.3	3.4	0.0	—	24.1
	무직	9	44.4	0.0	33.3	0.0	11.1	—	11.1
	주부	3	0.0	33.3	33.3	0.0	33.3	—	0.0

문6-3 귀하는 취·창업/프리랜서 활동을 위한 본인의 노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취업과 창업, 프리랜서 활동을 위하여 응답자의 85.7%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7%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	1.6
노력하지 않는다	8	12.7
노력하고 있다	54	85.7
합계	63	100.0

*무응답 32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성별로 창업 및 프리랜서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남자 83.7%, 여자 92.9%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의 92.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만안구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동안구(22.7%)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만안구(7.3%)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고 있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
전체		63	1.6	12.7	85.7	—
성별	남자	49	2.0	14.3	83.7	—
	여자	14	0.0	7.1	92.9	—
연령	19~24세	23	0.0	17.4	82.6	—
	25~29세	27	0.0	7.4	92.6	—
	30~34세	13	7.7	15.4	76.9	—
거주지	동안구	22	4.5	22.7	72.7	—
	만안구	41	0.0	7.3	92.7	—
직업	학생	37	0.0	10.8	89.2	—
	직장인	15	0.0	13.3	86.7	—
	무직	8	12.5	12.5	75.0	—
	주부	3	0.0	33.3	66.7	—

7. 진로위한 노력

문7	귀하는 진로를 위해 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복수응답)
----	---

- 진로를 위해 안양시 청년들은 33.1%가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 24.6%, ‘취업준비를 위한 그룹스터디’활동을 하는 비율이 11.7%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	335	33.1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수강	83	8.2
인터넷/모바일 강의 수강	38	3.8
직무경험을 쌓기 위한 인턴십	55	5.4
취업준비를 위한 그룹스터디	119	11.7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봉사활동	55	5.4
공모전 준비	40	3.9
시민운동, 정당활동, 지역공동체 활동 등의 사회활동	18	1.8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	249	24.6
취업을 고려하지 않음	21	2.1
합계	1,013	100.0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성별로는 남자 29.2%, 여자 38.0%가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남자(23.0%)와 여자(29.8%) 모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취업준비를 위한 그룹스터디’는 남자 15.0%로 여자 7.6%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의 경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와 30~34세는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이 각각 37.4%,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직장인과 무직의 경우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이 각각 34.8%,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술 습득, 자격증 관련 학원 수강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 수강	인터넷/ 모바일 강의 수강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한 인턴십	취업 준비를 위한 그룹 스터디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봉사 활동	공모전 준비	시민 운동, 정당 활동 등 사회 활동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	취업을 고려 하고 있지 않음
전체		1,013	33.1	8.2	3.8	5.4	11.7	5.4	3.9	1.8	24.6	2.1
성 별	남자	566	29.2	8.1	3.7	6.7	15.0	6.7	4.2	1.1	23.0	2.3
	여자	447	38.0	8.3	3.8	3.8	7.6	3.8	2.9	0.2	29.8	1.8
연 령	19~24세	389	27.0	9.8	5.1	4.9	9.5	3.6	3.9	1.3	31.1	3.9
	25~29세	318	37.4	3.8	2.2	8.2	14.2	7.2	2.2	2.2	21.7	0.9
	30~34세	318	34.9	10.4	3.5	3.1	11.6	5.7	5.0	1.9	23.0	0.9
거 주 지	동안구	516	30.6	7.2	3.3	4.5	7.6	4.5	4.3	1.7	34.1	2.3
	만안구	509	34.8	9.0	4.1	6.3	15.7	6.3	3.1	1.8	17.1	1.8
직 업	학생	485	20.8	10.5	5.8	7.4	6.8	6.0	4.1	1.4	34.2	2.9
	직장인	310	34.8	7.4	1.3	4.8	16.5	6.8	5.2	2.6	19.0	1.6
	무직	172	44.2	4.7	2.9	2.3	19.2	2.3	1.2	1.7	20.3	1.2
	주부	58	86.2	1.7	1.7	0.0	3.4	1.7	0.0	0.0	5.2	0.0

조사 결과 분석

문7-1	학원, 인터넷/모바일 강의 등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복수응답)
------	--

-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인터넷/모바일 강의를 듣는 경우 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한국어/한자능력검정’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 20.7%, ‘외국어’ 18.8%, ‘원하는 업무(직무)관련’ 10.2%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외국어	101	18.8
한국어/한자능력검정	220	41.0
컴퓨터 관련	111	20.7
원하는 업무(직무) 관련	55	10.2
인적성 시험 준비	18	3.4
면접준비	16	3.0
공인중개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관련	12	2.2
해당사항 없음	4	0.7
합계	537	100.0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안양시 청년들이 듣고 있는 강의로는 ‘한국어/한자능력검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성별로는 여자가 49.6%로 남자 33.6%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19~24세의 경우 ‘컴퓨터 관련’ 강의를 듣는다는 비율이 28.6%로 가장 높고, 다음이 ‘한국어/한자능력검정’ 24.9%, ‘외국어’ 23.8% 순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25~29세와 30~34세의 경우 ‘한국어/한자능력검정’이 각각 53.9%,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컴퓨터관련’ 28.8%, ‘외국어’ 26.5%의 순으로 나타남에 반해 직장인(53.2%)과 무직(50.5%)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한국어/한자능력검정’ 관련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외국어	한국어 /한자능력 검정	컴퓨터 관련	원하는 업무 (직무) 관련	인적성 시험 준비	면접준비	회계사, 변리사, 전문자격 증 관련
전체		537	18.8	41.0	20.7	10.2	3.4	3.0	2.2
성별	남자	289	21.8	33.6	20.1	11.1	4.8	4.5	3.5
	여자	248	15.3	49.6	21.4	9.3	1.6	1.2	0.8
연령	19~24세	189	23.8	24.9	28.6	14.8	2.1	2.1	3.7
	25~29세	165	12.7	53.9	13.3	9.7	4.2	3.6	1.2
	30~34세	183	19.1	45.9	19.1	6.0	3.8	3.3	1.6
거주지	동안구	270	17.8	27.0	27.4	15.6	4.1	3.7	3.3
	만안구	275	19.3	53.5	13.5	5.5	3.6	2.9	1.5
직업	학생	219	26.5	16.0	28.8	16.9	2.7	5.0	3.2
	직장인	158	17.7	53.2	18.4	5.1	1.3	3.2	1.3
	무직	109	12.8	50.5	14.7	9.2	8.3	0.9	2.8
	주부	52	1.9	88.5	5.8	0.0	1.9	0.0	0.0

문7-2	학원, 인터넷/모바일 강의를 비롯하여 현재 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취업준비에 충분합니까?
------	--

- 학원, 인터넷/모바일 강의를 비롯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취업준비에 충분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2.4%(매우 부족하다 6.5%+다소 부족하다 55.9%)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 반면 충분하다는 의견은 37.6%(약간 충분하다 32.8%+매우 충분하다 4.8%)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부족하다	12	6.5
다소 부족하다	104	55.9
약간 충분하다	61	32.8
매우 충분하다	9	4.8
합계	186	100.0

*무응답 270명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교육프로그램이 취업준비에 충분한가에 대하여 응답자 특성별 모두 ‘다소 부족하다’는 응답이 50%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은 ‘약간 충분하다’가 51.8%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약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전체		186	6.5	55.9	32.8	4.8
성별	남자	110	9.1	55.5	32.7	2.7
	여자	76	2.6	56.6	32.9	7.9
연령	19~24세	84	6.0	53.6	36.9	3.6
	25~29세	52	7.7	63.5	26.9	1.9
	30~34세	50	6.0	52.0	32.0	10.0
거주지	동안구	94	8.5	50.0	34.0	7.4
	만안구	92	4.3	62.0	31.5	2.2
직업	학생	85	3.5	37.6	51.8	7.1
	직장인	58	5.2	70.7	22.4	1.7
	무직	39	12.8	74.4	10.3	2.6
	주부	4	25.0	50.0	0.0	25.0

문7-2-1 (문7-2)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원하시는 강의나 프로그램을 적어주십시오

- 교육프로그램이 취업준비에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추가로 원하는 강의를 프로그램에 대해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자격증, 컴퓨터 활용)을 원한다는 의견과 실무중심 프로그램, 업무중심 외국어, 수준별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빈도(명)
수준별 강의	1
실무중심 프로그램	2
업무에 필요한 중요 문구나 단어의 다양함	1
업무중심 외국어	1
외국어(직무관련)	1
창업/스펙 올리기	1
컴퓨터 자격증	3
컴퓨터 활용	3

조사 결과 분석

문7-2-2 향후 안양시가 제공하는 강의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안양시가 제공하는 강의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9.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40.8%는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29	59.2
아니다	20	40.8
합계	49	100.0

*무응답 67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안양시가 제공하는 강의나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활용의향 조사결과 성별로는 남자(57.6%), 여자(62.5%) 모두에게서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9~24세(60.0%), 30~34세(69.2%)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25~29세는 ‘아니다’는 의견이 54.5%로 높게 나타남. 거주지별로도 두 개 거주지와 직업별로 학생, 직장인에게서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전체		49	59.2	40.8
성별	남자	33	57.6	42.4
	여자	16	62.5	37.5
연령	19~24세	25	60.0	40.0
	25~29세	11	45.5	54.5
	30~34세	13	69.2	30.8
거주지	동안구	28	60.7	39.3
	만안구	21	57.1	42.9
직업	학생	28	67.9	32.1
	직장인	11	54.5	45.5
	무직	9	33.3	66.7
	주부	1	100.0	0.0

조사 결과 분석

8. 취업준비,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문8	귀하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과거활동 포함)
----	---

- 취업준비,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과도한 스펙 경쟁의 어려움’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이 16.0%,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함으로 인한 어려움’ 13.0%, ‘취업할 만한 일자리 부족’이 12.8%, ‘나의 적성을 잘 알지 못함’ 10.1%,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9.0% 순으로 나타남
- 취업준비,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기가 어렵다’는 점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17.4%로 나타남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76	12.8	16	3.2
과도한 스펙 경쟁의 어려움	155	26.2	64	13.0
학원등록, 시험응시 등 취업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움	19	3.2	24	4.9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함으로 인한 어려움	77	13.0	32	6.5
나의 적성을 잘 알지 못함	60	10.1	52	10.5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53	9.0	86	17.4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95	16.0	26	5.3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기가 어려움	35	5.9	88	17.8
사회봉사 또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부족함	4	0.7	67	13.6
직무관련 자격증의 부족	18	3.0	39	7.9
합계	592	100.0	494	100.0

*무응답 1순위 8명, 2순위 106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1순위)】

- 성별로는 남자는 ‘과도한 스펙경쟁의 어려움’이 30.6%로 취업준비,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30.5%가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 연령별로는 19~24세와 30~34세는 ‘과도한 스펙경쟁의 어려움’이 각각 32.6%, 3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데 반해, 25~29세는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이 2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직업별로는 학생은 ‘과도한 스펙 경쟁의 어려움’이 31.9%로 가장 높는데 반해, 주부는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이 84.0%로 가장 높음. 그리고 무직의 경우에는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 병행 어려움’이 2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따라서 취업준비, 구직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단위 : %)

구분		사.폐수 (명)	취업할 만한 일자리 부족	과도한 스펙 경쟁 어려움	취업 비용 조달 어려움	취업 준비 아르바 이트 병행 어려움	나의 적성을 잘 알지 못함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외모, 출신 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취업에 필요한 경력 쌓기 어려움	사회 봉사 또는 해외 연수 기회 부족	직무 관련 자격증 부족
전체		592	12.8	26.2	3.2	13.0	10.1	9.0	16.0	5.9	0.7	3.0
성 별	남자	307	18.9	30.6	3.3	14.7	10.1	9.4	2.6	7.2	0.3	2.9
	여자	285	6.3	21.4	3.2	11.2	10.2	8.4	30.5	4.6	1.1	3.2
연 령	19~24세	218	11.5	32.6	4.1	12.4	14.7	11.0	1.8	7.8	0.5	3.7
	25~29세	191	15.2	10.5	3.7	15.2	7.9	9.4	27.7	5.8	0.5	4.2
	30~34세	183	12.0	35.0	1.6	11.5	7.1	6.0	20.8	3.8	1.1	1.1
거 주 지	동안구	320	10.9	27.2	2.8	11.3	14.4	10.0	12.2	5.6	0.9	4.7
	만안구	272	15.1	25.0	3.7	15.1	5.1	7.7	20.6	6.3	0.4	1.1
직 업	학생	282	11.0	31.9	5.0	5.7	14.9	14.2	1.8	9.6	1.1	5.0
	직장인	159	13.8	25.8	1.9	20.8	8.8	6.3	17.0	3.8	0.0	1.9
	무직	101	18.8	22.8	2.0	24.8	4.0	3.0	20.8	2.0	1.0	1.0
	주부	50	8.0	2.0	0.0	6.0	0.0	0.0	84.0	0.0	0.0	0.0

9. 취업활동 경험 및 내용

문9	귀하는 취업,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등 1주일 이상 근무를 하여 급여를 받는 취업활동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지위였습니까?
----	---

- 취업,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등 1주일 이상 근무를 하여 급여를 받는 취업활동 경험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아르바이트(기간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포함)’를 한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26.8%는 ‘정규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급여를 받고 일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도 11.1%임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정규직	113	26.8
아르바이트(기간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포함)	237	56.2
일용직(초단기 근로)	7	1.7
고용주	2	0.5
자영업자	8	1.9
가족의 일을 도움	8	1.9
경험없음	47	11.1
합계	422	100.0

*무응답 178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취업,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 남녀 모두 ‘아르바이트(기간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포함)’경험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자 42.6%, 여자 73.5%로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은 19~24세와 30~34세는 ‘아르바이트(기간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포함)’ > ‘정규직’ 순으로 나타난 반면, 25~29세는 ‘정규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포함)’이 각각 40.9%로 동일하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아르바이트(기간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포함)’ 74.3%, ‘정규직’ 11.1%, ‘경험 없음’ 9.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안구는 ‘정규직’ 52.2%, ‘아르바이트(기간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포함)’ 26.7%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기간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포함)’ 경험이 72.6%로 매우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정규직	아르 바이트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의 일을 도움	경험 없음
전체		422	26.8	56.2	1.7	0.5	1.9	1.9	11.1
성별	남자	237	34.2	42.6	3.0	0.8	3.4	2.5	13.5
	여자	185	17.3	73.5	0.0	0.0	0.0	1.1	8.1
연령	19~24세	189	19.6	69.8	1.1	0.0	0.0	1.1	8.5
	25~29세	127	40.9	40.9	3.1	0.0	3.1	3.9	7.9
	30~34세	106	22.6	50.0	0.9	1.9	3.8	0.9	19.8
거주지	동안구	261	11.1	74.3	1.5	0.8	1.1	1.5	9.6
	만안구	161	52.2	26.7	1.9	0.0	3.1	2.5	13.7
직업	학생	259	12.4	72.6	1.2	0.0	0.0	2.7	11.2
	직장인	100	45.0	34.0	1.0	1.0	5.0	1.0	13.0
	무직	58	55.2	25.9	5.2	0.0	5.2	0.0	8.6
	주부	5	80.0	0.0	0.0	20.0	0.0	0.0	0.0

문9-1 위 취업활동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취업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업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43.8%)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주거비/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임금’ 24.1%, ‘고용의 불안정’ 13.6%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학업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158	43.8
주거비/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임금	87	24.1
일과 가정생활(출산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7	1.9
고용의 불안정	49	13.6
이직준비	6	1.7
다양한 차별문제(성별, 학력, 출신지 등)	2	0.6
상사나 동료 등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22	6.1
과도한 업무와 잦은 야근	12	3.3
열악한 근무환경	18	5.0
합계	361	100.0

*무응답 14명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학업과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이 각각 37.9%,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비/생활비 충당하기에 부족한 임금’이 각각 25.6%, 22.3%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의 병행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25~29세의 경우 ‘고용 불안정’이 23.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거주자는 ‘학업과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이 53.1%로 가장 높은데 반해 만안구 거주자는 ‘주거비/생활비 충당하기에 부족한 임금’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이 ‘학업과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에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용의 불안정’이 15.8%로 나타났으나, 직장인과 무직은 ‘주거비/생활비 충당하기에 부족한 임금’이 각각 40.5%, 4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업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이 각각 28.6%, 23.5%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학업과 직장 생활 병행 어려움	주거비/ 생활비 충당 부족한 임금	일과 가정 생활 병행 어려움	고용 불안정	이직 준비	다양한 차별(성별, 학력, 출신지 등)	상사나 동료 등 대인 관계 어려움	과도한 업무와 잦은 야근	열악한 근무 환경
전체		361	43.8	24.1	1.9	13.6	1.7	0.6	6.1	3.3	5.0
성별	남자	195	37.9	25.6	3.6	18.5	2.1	0.5	3.6	3.6	4.6
	여자	166	50.6	22.3	0.0	7.8	1.2	0.6	9.0	3.0	5.4
연령	19~24세	166	48.2	22.3	1.2	11.4	0.6	0.6	7.2	3.6	4.8
	25~29세	114	36.8	24.6	2.6	23.7	2.6	0.9	3.5	2.6	2.6
	30~34세	81	44.4	27.2	2.5	3.7	2.5	0.0	7.4	3.7	8.6
거주지	동안구	226	53.1	20.4	1.3	5.8	2.7	0.0	8.0	4.0	4.9
	만안구	135	28.1	30.4	3.0	26.7	0.0	1.5	3.0	2.2	5.2
직업	학생	221	54.8	11.8	0.9	15.8	0.0	0.5	6.8	5.0	4.5
	직장인	84	28.6	40.5	1.2	11.9	6.0	0.0	3.6	1.2	7.1
	무직	51	23.5	49.0	5.9	7.8	2.0	2.0	7.8	0.0	2.0
	주부	5	20.0	40.0	20.0	0.0	0.0	0.0	0.0	0.0	20.0

10. 아르바이트 경험 및 내용

문10	귀하는 현재 또는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까?
-----	---------------------------------

- 응답자의 46.5%가 현재 또는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반해 53.5%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249	46.5
없다	286	53.5
합계	535	100.0

*무응답 65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는 42.1%, 여자는 51.1%가 현재 또는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68.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나타난 반면 25~29세, 30~34세는 각각 33.9%, 33.7%만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의 69.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직장인은 25.4%, 무직은 25.3%, 주부는 2.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단위 : %)

조사 결과 분석

구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535	46.5	53.5
성별	남자	271	42.1	57.9
	여자	264	51.1	48.9
연령	19~24세	195	68.7	31.3
	25~29세	171	33.9	66.1
	30~34세	169	33.7	66.3
거주지	동안구	301	65.8	34.2
	만안구	234	21.8	78.2
직업	학생	279	69.9	30.1
	직장인	130	25.4	74.6
	무직	79	25.3	74.7
	주부	47	2.1	97.9

문10-1 주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주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을 보면 44.6%가 ‘10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주 ‘10시간~20시간 미만’이 34.6%, ‘20시간~30시간 미만’이 15.8%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10시간 미만	107	44.6
10시간 ~ 20시간 미만	83	34.6
20시간 ~ 30시간 미만	38	15.8
30시간 ~ 40시간 미만	6	2.5
40시간 이상	6	2.5
합계	240	100.0

*무응답 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모든 집단 내에서 ‘10시간 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률로 조사되었고, 다만 만안구 거주자에게서 ‘10시간~20시간 미만’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조사 결과 분석

구분		사례수 (명)	10시간 미만	10시간 ~20시간 미만	20시간 ~30시간 미만	30시간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전체		240	44.6	34.6	15.8	2.5	2.5
성별	남자	108	42.6	36.1	16.7	1.9	2.8
	여자	132	46.2	33.3	15.2	3.0	2.3
연령	19~24세	131	42.7	35.9	16.8	2.3	2.3
	25~29세	54	38.9	33.3	22.2	5.6	0.0
	30~34세	55	54.5	32.7	7.3	0.0	5.5
거주지	동안구	191	47.6	34.0	14.7	2.1	1.6
	만안구	49	32.7	36.7	20.4	4.1	6.1
직업	학생	191	41.9	37.2	16.8	2.6	1.6
	직장인	32	56.3	25.0	12.5	0.0	6.3
	무직	15	46.7	26.7	13.3	6.7	6.7
	주부	2	100.0	0.0	0.0	0.0	0.0

문10-2 시간당 평균 임금은 얼마였습니까?

-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시간당 평균임금이 ‘6,000원~7,000원 미만’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000원~8,000원 미만’이 30.4%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6,000원 미만	8	3.4
6,000원 ~ 7,000원 미만	126	53.2
7,000원 ~ 8,000원 미만	72	30.4
8,000원 ~ 9,000원 미만	18	7.6
9,000원 이상	13	5.5
합계	237	100.0

*무응답 12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아르바이트 경험자들 중 평균임금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을 살펴보면, 성별 ‘6,000원~7,000원 미만’ 응답 비율이 남자 42.9%, 여자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6,000원~7,000원 미만’ 응답률이 가장 높고, ‘7,000원~8,000원 미만’은 19~24세에서 3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조사 결과 분석

- 거주지별 동안구, 만안구 모두 유사한 비율로 ‘6,000원~7,000원 미만’이 가장 두드러지고, 직업별로는 학생, 직장인, 무직에게서 ‘6,000원~7,000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6,000원 미만	6,000원 ~7,000원 미만	7,000원 ~8,000원 미만	8,000원 ~9,000원 미만	9,000원 이상
전체		237	3.4	53.2	30.4	7.6	5.5
성별	남자	112	4.5	42.9	33.9	10.7	8.0
	여자	125	2.4	62.4	27.2	4.8	3.2
연령	19~24세	130	2.3	51.5	32.3	7.7	6.2
	25~29세	54	5.6	50.0	29.6	11.1	3.7
	30~34세	53	3.8	60.4	26.4	3.8	5.7
거주지	동안구	185	2.7	53.0	31.4	7.6	5.4
	만안구	52	5.8	53.8	26.9	7.7	5.8
직업	학생	186	1.6	55.9	29.6	6.5	6.5
	직장인	32	12.5	40.6	31.3	15.6	0.0
	무직	18	5.6	50.0	33.3	5.6	5.6
	주부	1	0.0	0.0	100.0	0.0	0.0

문10-3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드는 비용충당을 위해’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35.5%)인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저축 또는 목돈을 마련을 위해’(11.6%), ‘등록금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해’(8.7%)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등록금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해	21	8.7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86	35.5
어학연수비용 마련을 위해	2	0.8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드는 비용충당을 위해	90	37.2
저축 또는 목돈마련을 위해	28	11.6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15	6.2
취업이나 창업의 스펙을 위해	—	—
합계	242	100.0

*무응답 7명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성별로 남자는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가 39.1%, 여자는 ‘여행이나 취미생활 비용충당을 위해’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5~29세는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24세와 30~34세는 ‘여행이나 취미생활 비용충당을 위해’가 각각 40.8%,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동안구에서 ‘여행이나 취미생활 비용충당을 위해’가 38.8%, 만안구에서는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가 39.1%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은 ‘여행이나 취미생활 비용 충당을 위해’가 40.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가 34.2%로 나타남. 이에 반해 직장인과 무직자는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가 각각 35.5%, 45.0%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등록금 등 학자금 마련	주거비/ 생활비 마련	어학연수 비용 마련	여행이나 취미생활 비용충당	저축 또는 목돈마련	사회경험 쌓기 위해	취업이나 창업 스펙위해
전체		242	8.7	35.5	0.8	37.2	11.6	6.2	—
성별	남자	110	12.7	39.1	0.0	31.8	12.7	3.6	—
	여자	132	5.3	32.6	1.5	41.7	10.6	8.3	—
연령	19~24세	130	4.6	33.8	0.8	40.8	11.5	8.5	—
	25~29세	57	15.8	38.6	1.8	24.6	12.3	7.0	—
	30~34세	55	10.9	36.4	0.0	41.8	10.9	0.0	—
거주지	동안구	196	7.1	34.7	1.0	38.8	12.2	6.1	—
	만안구	46	15.2	39.1	0.0	30.4	8.7	6.5	—
직업	학생	190	5.8	34.2	0.5	40.0	12.1	7.4	—
	직장인	31	16.1	35.5	3.2	29.0	12.9	3.2	—
	무직	20	25.0	45.0	0.0	25.0	5.0	0.0	—
	주부	1	0.0	100.0	0.0	0.0	0.0	0.0	—

조사 결과 분석

문10-4 아르바이트 중 귀하가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 아르바이트 중 경험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59.1%가 ‘경험한적 없다’로 나타났으며, 16.8%는 ‘보수없는 추가근로’, 6.9%는 ‘최저시급 미달’, 6.0%는 ‘부당해고’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임금체불	8	3.4
최저시급 미달	16	6.9
부당해고	14	6.0
정규직과의 차별	9	3.9
폭언/폭행/성추행	9	3.9
보수없는 추가근로	39	16.8
경험한적 없음	137	59.1
합계	232	100.0

*무응답 17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 64.8%, 여자 54.3%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수 없는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남자 11.4%, 여자 2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5~29세는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비율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든 연령대에서 ‘보수 없는 추가근로’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다음으로 19~24세는 ‘최저시급 미달’ 10.6%, 25~29세는 ‘부당해고’ 8.9%, 30~34세는 ‘정규직과의 차별’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도 ‘경험한 적 없다’가 학생, 직장인, 무직 각각 62.1%, 56.7%,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은 ‘보수없는 추가근로’가 17.6%, 무직은 ‘부당해고’와 ‘보수없는 추가근로’가 각각 1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달	부당해고	정규직과 차별	폭언/폭행 /성추행	보수없는 추가근로	경험한적 없음
전체		232	3.4	6.9	6.0	3.9	3.9	16.8	59.1
성별	남자	105	1.9	6.7	5.7	5.7	3.8	11.4	64.8
	여자	127	4.7	7.1	6.3	2.4	3.9	21.3	54.3
연령	19~24세	123	3.3	10.6	4.1	2.4	5.7	15.4	58.5
	25~29세	56	5.4	1.8	8.9	1.8	1.8	19.6	60.7
	30~34세	53	1.9	3.8	7.5	9.4	1.9	17.0	58.5
거주지	동안구	189	3.7	6.9	5.8	3.2	3.2	18.0	59.3
	만안구	43	2.3	7.0	7.0	7.0	7.0	11.6	58.1
직업	학생	182	3.3	7.1	4.4	1.6	3.8	17.6	62.1
	직장인	30	3.3	3.3	10.0	10.0	3.3	13.3	56.7
	무직	19	5.3	10.5	15.8	10.5	5.3	15.8	36.8
	주부	1	0.0	0.0	0.0	100.0	0.0	0.0	0.0

문10-5	귀하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귀하의 취·창업 등 미래에 대한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아르바이트 경험이 취업 혹은 창업 등 미래에 대한 준비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다소 긍정적’(51.8%)과 ‘매우 긍정적’(21.9%)을 합쳐서 73.7%로 높게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부정적	3	1.3
약간 부정적	17	7.6
다소 긍정적	116	51.8
매우 긍정적	49	21.9
영향 없음	39	17.4
합계	224	100.0

*무응답 25명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취·창업에 있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력에 대해 남녀 모두 ‘다소 긍정적’인 의견이 각각 51.5%, 52.1%로 나타남
- 연령별, 거주지별, 직업별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인의 경우 ‘약간 부정적’인 응답이 1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영향 없음
전체		224	1.3	7.6	51.8	21.9	17.4
성별	남자	103	1.9	4.9	51.5	21.4	20.4
	여자	121	0.8	9.9	52.1	22.3	14.9
연령	19~24세	119	0.8	5.9	52.9	23.5	16.8
	25~29세	54	1.9	7.4	51.9	20.4	18.5
	30~34세	51	2.0	11.8	49.0	19.6	17.6
거주지	동안구	181	1.1	6.1	54.1	22.1	16.6
	만안구	43	2.3	14.0	41.9	20.9	20.9
직업	학생	178	0.6	6.7	52.8	21.9	18.0
	직장인	31	0.0	12.9	41.9	22.6	22.6
	무직	14	14.3	7.1	57.1	21.4	0.0
	주부	1	0.0	0.0	100.0	0.0	0.0

11. 직장경험

문11	귀하는 현재 직장인이십니까?
-----	-----------------

- 응답자의 27.6%가 현재 직장인이라고 응답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160	27.6
아니다	420	72.4
합계	580	100.0

*무응답 20명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는 34.4%, 여자는 20.1%가 직장인으로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는 19~24세는 7.1%만이 직장인인데 반해 25~29세는 32.1%, 30~34세는 46.7%가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23.7%, 만안구는 32.3%가 직장인임
- 직업별로는 학생인 경우 1.1%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부의 경우 6.0%만 직장인인 것으로 조사됨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전체		580	27.6	72.4
성별	남자	302	34.4	65.6
	여자	278	20.1	79.9
연령	19~24세	210	7.1	92.9
	25~29세	190	32.1	67.9
	30~34세	180	46.7	53.3
거주지	동안구	317	23.7	76.3
	만안구	263	32.3	67.7
직업	학생	279	1.1	98.9
	주부	50	6.0	94.0

* 직업특성 중 직장인과 무직 251명 제외

문11-1 귀하는 이직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직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응답자 중 이직을 경험하거나, 이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45.5%, 그렇지 않은 응답자가 54.5%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10	45.5
아니다	12	54.5
합계	22	100.0

*무응답 138명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이직경험이 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남자가 58.3%로 여자 3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에서는 30~34세에서 62.5%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직업별로는 직장인에게서 이직경험이 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61.5%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전체		22	45.5	54.5
성별	남자	12	58.3	41.7
	여자	10	30.0	70.0
연령	19~24세	6	50.0	50.0
	25~29세	8	50.0	50.0
	30~34세	8	37.5	62.5
거주지	동안구	7	42.9	57.1
	만안구	15	46.7	53.3
직업	학생	3	33.3	66.7
	직장인	13	61.5	38.5
	주부	3	33.3	66.7

* 직업특성 중 무직 3명 제외

문11-1-1	귀하가 이전에 취업했던 과거 이직 이유 혹은 현재 이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이직을 경험하거나, 계획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하는 일이 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	10.0
폐업이나 해고, 사업(일) 종료로 인해서	1	10.0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1	10.0
연애 및 결혼을 이유로	—	—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1	10.0
육아 및 가사의 이유로	—	—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5	50.0
건강상의 이유로	—	—
창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	10.0
동료 또는 상관과의 불화 때문에	—	—
더 나은 조건의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	—
합계	10	100.0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이직에 대한 사유는 남녀 모두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라는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자(33.3%)보다 여자(75.0%)가 더 높음
-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60.0%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만안구의 경우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57.1%)가 이직사유라는 의견이 동안구(33.3%)보다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가 57.1%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계약 기간이 만료 되어서	폐업 이나 해고, 사업 종료로인해	전망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근무 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창업 이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10	10.0	10.0	10.0	10.0	50.0	10.0
성별	남자	6	0.0	16.7	16.7	16.7	33.3	16.7
	여자	4	25.0	0.0	0.0	0.0	75.0	0.0
연령	19~24세	5	20.0	0.0	0.0	20.0	60.0	0.0
	25~29세	3	0.0	33.3	33.3	0.0	33.3	0.0
	30~34세	2	0.0	0.0	0.0	0.0	50.0	50.0
거주지	동안구	3	33.3	0.0	33.3	0.0	33.3	0.0
	만안구	7	0.0	14.3	0.0	14.3	57.1	14.3
직업	학생	2	0.0	0.0	50.0	50.0	0.0	0.0
	직장인	7	14.3	14.3	0.0	0.0	57.1	14.3
	무직	1	0.0	0.0	0.0	0.0	100.0	0.0

II.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1. 현 주거 현황

문12	귀하는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까?
-----	---------------------------------

- 응답자의 77.4%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반해 22.6%만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128	22.6
아니다	439	77.4
합계	567	100.0

*무응답 33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여자 32.0%, 25~29세 37.2%, 만안구 거주자 30.1%, 주부 88.2% 에게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전체		567	22.6	77.4
성별	남자	289	13.5	86.5
	여자	278	32.0	68.0
연령	19~24세	214	6.5	93.5
	25~29세	188	37.2	62.8
	30~34세	165	26.7	73.3
거주지	동안구	301	15.9	84.1
	만안구	266	30.1	69.9
직업	학생	277	4.3	95.7
	직장인	150	26.0	74.0
	무직	89	36.0	64.0
	주부	51	88.2	11.8

조사 결과 분석

문12-1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면적은 ‘20평 미만’이 72.0%이고, ‘20평 이상’은 28.0%에 해당함

구분	빈도(명)	비율(%)
20평 미만	18	72.0
20평 이상	7	28.0
합계	25	100.0

*무응답 103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집의 면적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20평 미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30~34세 집단에서만 ‘20평 이상’이 66.7%로 높게 조사됨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20평 미만	20평 이상
전체		25	72.0	28.0
성별	남자	20	70.0	30.0
	여자	5	80.0	20.0
연령	19~24세	11	81.8	18.2
	25~29세	11	72.7	27.3
	30~34세	3	33.3	66.7
거주지	동안구	11	72.7	27.3
	만안구	11	72.7	27.3
직업	학생	10	100.0	0.0
	직장인	4	50.0	50.0
	무직	10	50.0	50.0
	주부	1	100.0	0.0

문12-2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주택의 점유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8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기집’ 8.0%임. 따라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자기집	7	8.0
전세	2	2.3
보증금 있는 월세	75	86.2
보증금 없는 월세	1	1.1
무상	2	2.3
합계	87	100.0

*무응답 41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안양시 청년들의 주택 점유형태는 응답자 특성별 모두 ‘보증금 있는 월세’가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여자(95.9%), 25~29세(95.7%), 만안구(89.7%), 직장인(92.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전체		87	8.0	2.3	86.2	1.1	2.3
성별	남자	38	15.8	5.3	73.7	2.6	2.6
	여자	49	2.0	0.0	95.9	0.0	2.0
연령	19~24세	14	28.6	7.1	57.1	0.0	7.1
	25~29세	47	4.3	0.0	95.7	0.0	0.0
	30~34세	26	3.8	3.8	84.6	3.8	3.8
거주지	동안구	29	6.9	6.9	79.3	3.4	3.4
	만안구	58	8.6	0.0	89.7	0.0	1.7
직업	학생	12	16.7	8.3	66.7	0.0	8.3
	직장인	39	2.6	2.6	92.3	0.0	2.6
	무직	29	13.8	0.0	86.2	0.0	0.0
	주부	7	0.0	0.0	85.7	14.3	0.0

문12-3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귀하는 주거비(보증금, 전세금, 월세금, 관리비 등)를 어떻게 조달하고 계십니까? 가장 주된 방법을 골라주십시오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주거비를 조달하는 가장 주된 방법으로는 ‘대출이나 빚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스로 조달’(15.7%), ‘부모님이 지원’(10.2%)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님이 지원	13	10.2
스스로 조달	20	15.7
대출이나 빚으로 충당	90	70.9
무상으로 거주	1	0.8
부모님 지원 + 스스로 충당	3	2.4
합계	127	100.0

*무응답 1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주거비용 조달방법에 있어 남자는 ‘스스로 조달’한다는 의견이 39.5%로 가장 높고, 여자는 ‘대출이나 빚으로 충당’이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부모님이 지원’으로 대부분 조달하고, 25세 이상은 ‘대출이나 빚으로 충당’한다는 의견이 약 77%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만안구 모두 ‘대출이나 빚으로 충당’한다는 의견이 높고, 만안구에서 ‘스스로 조달’한다는 의견이 19.0%로 동안구 10.4%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은 100% ‘부모님의 지원’으로 주거비용을 충당하고, 직장인, 무직, 주부는 ‘대출이나 빚으로 충당’이 각각 68.3%, 62.5%, 93.3%로 가장 높게 조사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부모님이 지원	스스로 조달	대출이나 빚으로 충당	무상으로 거주	부모님지원+ 스스로충당
전체		127	10.2	15.7	70.9	0.8	2.4
성별	남자	38	23.7	39.5	28.9	2.6	5.3
	여자	89	4.5	5.6	88.8	0.0	1.1
연령	19~24세	11	63.6	36.4	0.0	0.0	0.0
	25~29세	72	5.6	12.5	77.8	1.4	2.8
	30~34세	44	4.5	15.9	77.3	0.0	2.3
거주지	동안구	48	16.7	10.4	66.7	2.1	4.2
	만안구	79	6.3	19.0	73.4	0.0	1.3
직업	학생	9	100.0	0.0	0.0	0.0	0.0
	직장인	41	2.4	29.3	68.3	0.0	0.0
	무직	32	6.3	21.9	62.5	3.1	6.3
	주부	45	2.2	2.2	93.3	0.0	2.2

조사 결과 분석

문12-4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귀하가 따로 거처를 마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모님으로 독립한 경우 거처를 따로 마련한 이유로는 ‘기숙사나 사택 등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어서’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5.4%가 ‘친구나 동료 등 사람들을 만나기 편해서’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통학/통근을 위한 교통편이 불편해서	5	4.5
통학/통근에 드는 시간이 길어서	5	4.5
통학/통근에 드는 비용부담이 커서	2	1.8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문화·체육시설들이 많아서	3	2.7
친구나 동료 등 사람들을 만나기 편해서	6	5.4
혼자 또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보고 싶어서	2	1.8
기숙사나 사택 등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어서	88	79.3
합계	111	100.0

*무응답 17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부모님과 독립해서 생활하는 주된 이유로 남녀 모두 ‘기숙사나 사택 등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어서’가 각각 34.6%, 92.9%로 높은 가운데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통학/통근 시간이 길어서’라는 의견이 33.3%로 가장 높는데 반해 25세 이상은 ‘기숙사나 사택 등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어서’가 약 80%이상으로 상당히 높음
- 거주지별로도 역시 ‘기숙사나 사택 등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직업별로는 학생들은 통학과 관련하여 교통 및 시간을 이유로 가장 높게 제시한 반면, 나머지 직업군은 저렴한 비용의 거처마련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통학/통근 위한 교통편이 불편해서	통학/통근 시간이 길어서	통학/통근 비용 부담이 커서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한 문화·체육 시설들이 많아서	친구나 동료 등 사람들을 만나기 편해서	혼자 또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보고 싶어서	기숙사나 사택 등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어서
전체		111	4.5	4.5	1.8	2.7	5.4	1.8	79.3
성별	남자	26	11.5	11.5	7.7	7.7	23.1	3.8	34.6
	여자	85	2.4	2.4	0.0	1.2	0.0	1.2	92.9
연령	19~24세	9	22.2	33.3	0.0	22.2	11.1	0.0	11.1
	25~29세	64	3.1	3.1	1.6	0.0	6.3	3.1	82.8
	30~34세	38	2.6	0.0	2.6	2.6	2.6	0.0	89.5
거주지	동안구	40	5.0	2.5	5.0	0.0	5.0	5.0	77.5
	만안구	71	4.2	5.6	0.0	4.2	5.6	0.0	80.3
직업	학생	8	37.5	37.5	0.0	0.0	0.0	12.5	12.5
	직장인	32	0.0	6.3	0.0	3.1	9.4	0.0	81.3
	무직	27	3.7	0.0	3.7	7.4	11.1	3.7	70.4
	주부	44	2.3	0.0	2.3	0.0	0.0	0.0	95.5

2. 안양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관련 정책

문13	귀하는 안양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관련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관련 정책은 ‘청년쉐어하우스(방은 개인소유, 거실·주방 공동 사용)’에 대한 요구가 3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년을 위한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이 25.7%로 나타남. 그 외 ‘임차인보호제도의 강화 및 관련 교육확대’에 대한 수요가 18.8%로 조사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청년을 위한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145	25.7
청년쉐어하우스(방은 개인소유, 거실·주방 공동 사용)	171	30.3
고시원 또는 원룸의 안전관리 정책	42	7.4
임차인보호제도의 강화 및 관련 교육확대	106	18.8
미분양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청년층 우선임대	50	8.8
주거지 주변에 대한 치안강화	41	7.3
룸쉐어링(60대 이상 어르신 택의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 실시	10	1.8
합계	565	100.0

*무응답 35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는 ‘청년쉐어하우스(방은 개인소유, 거실·주방 공동사용)’ 36.1%, ‘청년을 위한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30.2%로 나타난데 반해 여자는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및 관련 교육확대’ 29.9%, ‘청년쉐어하우스(방은 개인소유, 거실·주방 공동사용)’ 24.1%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30.9%가 ‘청년을 위한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25~29세는 31.1%가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및 관련 교육확대’, 30~34세는 38.0%가 ‘청년쉐어하우스(방은 개인소유, 거실·주방 공동사용)’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와 만안구 모두 ‘청년쉐어하우스(방은 개인소유, 거실·주방 공동사용)’이 각각 31.6%,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직업별로는 학생, 직장인, 무직 직업군에서는 ‘청년쉐어하우스(방은 개인소유, 거실·주방 공동사용)’이 각각 33.3%, 30.7%, 35.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부의 경우 ‘임차인보호제도의 강화 및 관련 교육확대’가 87.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청년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청년 셰어 하우스	고시원 또는 원룸 안전관리 정책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및 관련 교육확대	미분양 공공주택 이나 임대주택 청년층 우선임대	주거지 주변 치안강화	룸셰어링 실시
전체		565	25.7	30.3	7.4	18.8	8.8	7.3	1.8
성별	남자	291	30.2	36.1	7.2	8.2	10.3	6.2	1.7
	여자	274	20.8	24.1	7.7	29.9	7.3	8.4	1.8
연령	19~24세	204	30.9	28.9	12.7	2.9	6.9	14.7	2.9
	25~29세	190	25.8	24.7	5.3	31.1	9.5	2.1	1.6
	30~34세	171	19.3	38.0	3.5	24.0	10.5	4.1	0.6
거주지	동안구	313	24.3	31.6	8.6	12.5	10.5	9.6	2.9
	만안구	252	27.4	28.6	6.0	26.6	6.7	4.4	0.4
직업	학생	273	23.8	33.3	12.8	3.7	8.4	15.0	2.9
	직장인	150	29.3	30.7	2.0	20.7	16.0	0.0	1.3
	무직	94	35.1	35.1	3.2	24.5	2.1	0.0	0.0
	주부	48	6.3	2.1	2.1	87.5	2.1	0.0	0.0

3. 통학 또는 통근 지역

문14	귀하가 주로 통학 또는 통근을 하는 지역의 위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응답자의 46.9%인 거의 절반은 '안양시'로 통학·통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내 타시/군'으로 통학·통근 26.6%,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타시도'로 통학·통근 13.2%, '서울시'로 통학·통근이 10.7%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시	63	10.7
경기도 내 타시/군	157	26.6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타시도	78	13.2
안양시	277	46.9
해당사항 없음	16	2.7
합계	591	100.0

*무응답 9명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성별로는 ‘안양시’에서 통학 통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여자(49.5%)가 남자(44.4%)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안양시’ 통근·통학의 비율이 39.4%, ‘경기도 내 타 시군’ 통근·통학 비율이 30.6%인데 반해, 25~29세는 ‘안양시’ 통근·통학 비율 46.1%, ‘경기도 내 타시군’ 통근·통학 비율이 27.5%로 나타남. 30~34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양시’ 통근·통학자 비율이 56.6%로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거주자의 35.7%는 ‘경기도 내 타시군’으로 통근·통학하고, 만안구는 60.3%가 ‘안양시’에서 통근·통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은 ‘안양시’, ‘경기도 내 타시군’으로 통학·통근하는 비율이 각각 39.7%, 38.7%인데 반해 직장인 48.1%가 ‘안양시’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서울시	경기도 내 타시/군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타시도	안양시	해당사항 없음
전체		591	10.7	26.6	13.2	46.9	2.7
성별	남자	306	7.2	28.4	16.7	44.4	3.3
	여자	285	14.4	24.6	9.5	49.5	2.1
연령	19~24세	216	14.8	30.6	12.5	39.4	2.8
	25~29세	193	9.8	27.5	14.0	46.1	2.6
	30~34세	182	6.6	20.9	13.2	56.6	2.7
거주지	동안구	319	16.3	35.7	10.3	35.4	2.2
	만안구	272	4.0	15.8	16.5	60.3	3.3
직업	학생	282	15.6	38.7	3.9	39.7	2.1
	직장인	160	8.1	18.1	20.6	48.1	5.0
	무직	99	6.1	18.2	32.3	42.4	1.0
	주부	50	0.0	2.0	4.0	92.0	2.0

문14-1 통학 또는 통근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통학 또는 통근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60분~90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30분~60분 미만’은 31.3%, ‘30분 미만’은 12.0%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30분 미만	68	12.0
30분 ~ 60분 미만	177	31.3
60분 ~ 90분 미만	291	51.5
90분 이상	29	5.1
합계	565	100.0

*무응답 10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통학 또는 통근 시간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 ‘60분~90분 미만’이 남자 47.8%, 여자 55.4%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30분~60분 미만’이 44.1%로 가장 높고, 25~29세와 30~34세는 ‘60분~90분 미만’이 각각 68.1%, 57.4%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만안구 모두 ‘60분~90분 미만’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직업별로는 학생은 ‘30분~60분 미만’이 47.2%로 가장 높고, 그 외 직업군에서는 ‘60분~90분 미만’이 각각 64.9%, 82.1%, 92.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30분 미만	30분 ~ 60분 미만	60분 ~ 90분 미만	90분 이상
전체		565	12.0	31.3	51.5	5.1
성별	남자	289	13.1	34.6	47.8	4.5
	여자	276	10.9	27.9	55.4	5.8
연령	19~24세	204	16.7	44.1	31.4	7.8
	25~29세	185	7.6	21.6	68.1	2.7
	30~34세	176	11.4	26.7	57.4	4.5
거주지	동안구	306	14.4	32.7	45.4	7.5
	만안구	259	9.3	29.7	58.7	2.3
직업	학생	269	19.7	47.2	25.7	7.4
	직장인	151	7.9	23.2	64.9	4.0
	무직	95	3.2	11.6	82.1	3.2
	주부	50	0.0	8.0	92.0	0.0

III. 생활안정

1. 월평균 소득액, 지출액, 세부 지출금액

문15	지난 3개월 기준으로 귀하의 월평균 소득액과 지출액, 세부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	--

■ 월평균 소득액

- 월평균 소득액을 보면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이 31.2%로 나타남. 그리고 '50만원~100만원 미만'이 24.1%를 차지함

구분	빈도(명)	비율(%)
50만원 미만	115	31.2
50만원 ~ 100만원 미만	89	24.1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51	40.9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1	3.0
300만원 이상	3	0.8
합계	369	100.0

*무응답 231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월평균 소득액이 남자는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비율이 37.5%로 제일 높은 가운데 여자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50만원 미만'이 46.7%로 가장 높고, 25~29세와 30~34세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각각 61.3%,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월평균 소득액에 차이를 보임
- 직업별로는 학생이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고, 직장인과 주부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62.7%, 97.8%로 가장 높음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		369	31.2	24.1	40.9	3.0	0.8
성별	남자	152	37.5	24.3	32.9	3.9	1.3
	여자	217	26.7	24.0	46.5	2.3	0.5
연령	19~24세	135	46.7	34.8	16.3	1.5	0.7
	25~29세	124	17.7	16.9	61.3	4.0	0.0
	30~34세	110	27.3	19.1	48.2	3.6	1.8
거주지	동안구	248	35.9	27.8	32.7	2.8	0.8
	만안구	121	21.5	16.5	57.9	3.3	0.8
직업	학생	188	46.3	36.2	14.9	2.1	0.5
	직장인	83	6.0	22.9	62.7	6.0	2.4
	주부	45	0.0	0.0	97.8	2.2	0.0

■ 월평균 지출액

- 월평균 지출액을 보면 '50만원 미만'이 43.2%로 가장 높은 가운데, '100만원~200만원 미만' 35.1%, '50만원~100만원 미만' 20.4%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50만원 미만	161	43.2
50만원 ~ 100만원 미만	76	20.4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31	35.1
200만원 ~ 300만원 미만	4	1.1
300만원 이상	1	0.3
합계	373	100.0

*무응답 227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가 '5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비율이 57.1%로 가장 높은 가운데 여자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한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19~24세는 '5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비율이 50.0%로 가장 높고, 25~29세는 '100만원~20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비율이 53.6%, 30~34세는 '50만원 미만'이 47.4%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50.2%가 '50만원 미만' 지출한다고 한데 반

조사 결과 분석

- 해 만안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56.7%는 ‘100만원~200만원 미만’ 지출한다고 응답함
- 직업별로는 학생과 직장인은 각각 50.8%, 48.8%가 ‘5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반면 무직인 경우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50.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		373	43.2	20.4	35.1	1.1	0.3
성별	남자	154	57.1	20.8	20.8	1.3	0.0
	여자	219	33.3	20.1	45.2	0.9	0.5
연령	19~24세	134	50.0	33.6	15.7	0.7	0.0
	25~29세	125	32.0	12.8	53.6	1.6	0.0
	30~34세	114	47.4	13.2	37.7	0.9	0.9
거주지	동안구	253	50.2	23.7	24.9	1.2	0.0
	만안구	120	28.3	13.3	56.7	0.8	0.8
직업	학생	193	50.8	33.2	14.5	1.6	0.0
	직장인	82	48.8	11.0	39.0	0.0	1.2
	무직	53	43.4	5.7	50.9	0.0	0.0
	주부	45	0.0	0.0	97.8	2.2	0.0

■ 세부지출액-1) 식비

- － 식비에 대한 지출액을 보면 응답자의 50.5%가 ‘25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50만원~75만원 미만’이 33.1%, ‘25만원~50만원 미만’이 14.6%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25만원 미만	163	50.5
25만원 ~ 50만원 미만	47	14.6
50만원 ~ 75만원 미만	107	33.1
75만원 ~ 100만원 미만	3	0.9
100만원 이상	3	0.9
합계	323	100.0

*무응답 50명

■ 세부지출액-2)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 － 월세, 관리비등 주거비 지출은 식비에 대한 지출액을 보면 응답자의 62.9%가 ‘2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40만원~60만원 미만’이 34.0%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20만원 미만	183	62.9
20만원 ~ 40만원 미만	6	2.1
40만원 ~ 60만원 미만	99	34.0
60만원 이상	3	1.0
합계	291	100.0

*무응답 82명 : 지출이 있는 응답자가 373명으로 문15-2 응답자 291명을 제외한 82명 무응답 처리

■ 세부지출액-3) 학원비(교재비 등)

- 교재비 등 학원비 지출액에 대해 87.1%가 '10만원 미만'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10만원 미만	182	87.1
10만원 ~ 20만원 미만	12	5.7
20만원 ~ 30만원 미만	6	2.9
30만원 ~ 40만원 미만	5	2.4
40만원 이상	4	1.9
합계	209	100.0

*무응답 164명

■ 세부지출액-4) 통신비, 인터넷비

- 통신비, 인터넷비 지출액에 대해 47.5%가 '5만원 미만'인 가운데 '10만원~15만원 미만'인 비율도 37.4%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5만원 미만	141	47.5
5만원 ~ 10만원 미만	29	9.8
10만원 ~ 15만원 미만	111	37.4
15만원 ~ 20만원 미만	3	1.0
20만원 이상	13	4.4
합계	297	100.0

*무응답 76명

■ 세부지출액-5) 교통비, 자동차 유지비

- 교통비·자동차 유지비 지출액에 '10만원 미만'이 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만원 이상' 28.5%, '10만원~20만원 미만' 26.2%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10만원 미만	110	36.1
10만원 ~ 20만원 미만	80	26.2
20만원 ~ 30만원 미만	10	3.3
30만원 ~ 40만원 미만	18	5.9
40만원 이상	87	28.5
합계	305	100.0

*무응답 68명

■ 세부지출액-6) 여가 및 생활유지비

- 여가 및 생활유지비로 지출하는 액수를 보면 '15만원 미만'이 44.2%로 가장 높은 가운데, '15만원~30만원 미만'이 39.7%로, 전체 83.9%가 3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15만원 미만	137	44.2
15만원 ~ 30만원 미만	123	39.7
30만원 ~ 45만원 미만	26	8.4
45만원 ~ 60만원 미만	8	2.6
60만원 이상	16	5.2
합계	310	100

*무응답 63명

■ 세부지출액-7) 부채상환비(원금, 이자 등)

- 응답자의 81.6%가 부채상환비가 '10만원 미만'으로 나타남. 그러나 '10만원~20만원 미만'의 부채를 매월 상환하는 비율도 16.2%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10만원 미만	191	81.6
10만원 ~ 20만원 미만	38	16.2
20만원 이상	5	2.1
합계	234	100.0

*무응답 139명

■ 세부지출액-8) 기타 지출액

- 기타 지출액수는 '20만원 이상'이 9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 기타 지출 사항에는 저축, 담배, 등록금, 생활비, 십일조, 후원, 여행경비, 옷 유흥비 등의 의견 있음

구분	빈도(명)	비율(%)
10만원 미만	1	2.3
10만원 ~ 20만원 미만	1	2.3
20만원 이상	42	95.5
합계	44	100.0

*무응답 329명

2. 생활에 필요한 비용 충당 방법

문16	귀하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

-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형제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으로’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43.3%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직장(월급)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고 함

구분	빈도(명)	비율(%)
직장(월급)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244	43.3
부모, 형제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으로	268	47.6
예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33	5.9
대출을 통해	14	2.5
정부의 생계지원금으로	2	0.4
특정기관의 장학금으로	2	0.4
합계	563	100.0

*무응답 37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성별로는 남자는 ‘부모, 형제로부터 용돈, 친척의 도움으로’가 58.4%로 가장 높은데 반해 여자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가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와 30~34세는 ‘부모, 형제로부터 용돈, 친척의 도움으로’가 각각 49.8%,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는 ‘직장(월급)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51.1%가 ‘직장(월급)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

조사 결과 분석

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안구의 경우 ‘부모, 형제로 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으로’가 55.4%로 가장 높음

- 직업별로는 직장인과 무직은 ‘부모, 형제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으로’가 각각 61.7%, 54.8%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음. 이에 반해 학생과 주부는 ‘직장(월급)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부모, 형제로부터 용돈, 친척 도움	모아둔 저축	대출	정부 생계지원금	특정기관 장학금
전체		563	43.3	47.6	5.9	2.5	0.4	0.4
성별	남자	291	27.8	58.4	7.9	4.5	0.7	0.7
	여자	272	59.9	36.0	3.7	0.4	0.0	0.0
연령	19~24세	207	41.5	49.8	7.7	1.0	0.0	0.0
	25~29세	186	47.3	40.9	8.1	3.2	0.0	0.5
	30~34세	170	41.2	52.4	1.2	3.5	1.2	0.6
거주지	동안구	305	51.1	41.0	6.2	0.7	0.7	0.3
	만안구	258	34.1	55.4	5.4	4.7	0.0	0.4
직업	학생	273	47.3	44.3	7.0	1.1	0.0	0.4
	직장인	149	30.9	61.7	2.7	4.7	0.0	0.0
	무직	93	31.2	54.8	8.6	3.2	1.1	1.1
	주부	48	83.3	8.3	4.2	2.1	2.1	0.0

3. 학업에 필요한 비용(등록금 등) 충당 방법

문17	귀하는 학업에 필요한 비용(등록금 등)을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중복응답)
-----	--

- 학업에 필요한 등록금 등의 비용에 대해 ‘부모·형제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으로’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27.0%는 ‘대출을 통해’, 16.4%는 ‘특정기관의 장학금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직장(월급)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71	10.9
부모, 형제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으로	276	42.3
예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22	3.4
대출을 통해	176	27.0
특정기관의 장학금을 통해	107	16.4
합계	652	100.0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 여자 모두 ‘부모, 형제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이 가장 높은 가운데(남자 45.1%, 여자 39.4%), 여자의 경우 ‘대출을 통해’가 31.5%로 남자(22.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의 경우 51.9%인 과반수 이상이 ‘부모, 형제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인 반면 25~29세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5%가 ‘대출을 통해’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부모 형제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무직의 경우 ‘대출을 통해’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모,형제로 부터 용돈을 받거나 친척의 도움	예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대출을 통해	특정기관의 장학금을 통해
전체		652	10.9	42.3	3.4	27.0	16.4
성별	남자	335	10.4	45.1	3.6	22.7	18.2
	여자	317	11.4	39.4	3.2	31.5	14.5
연령	19~24세	262	11.1	51.9	3.8	11.1	22.1
	25~29세	198	11.1	27.3	2.5	45.5	13.6
	30~34세	192	10.4	44.8	3.6	29.7	11.5
거주지	동안구	396	13.4	46.7	3.5	16.2	20.2
	만안구	256	7.0	35.5	3.1	43.8	10.5
직업	학생	372	11.6	48.1	3.2	14.8	22.3
	직장인	156	12.8	40.4	3.2	32.1	11.5
	무직	81	8.6	35.8	6.2	42.0	7.4
	주부	43	2.3	11.6	0.0	86.0	0.0

조사 결과 분석

4. 부채(빚) 현황

문18	귀하는 현재 본인이 갚아야하는 부채(빚)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	--

■ 응답자 중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1.3%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부채가 있다	52	11.3
부채가 없다	408	88.7
합계	460	100.0

*무응답 140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부채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 성별기준 남자 14.3%, 여자 8.4%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기준 부채가 있는 경우 25~29세에서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부채의 여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업별로는 무직인 경우 19.0%가 부채가 있고, 직장인의 경우 13.3%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부채가 있다	부채가 없다
전체		460	11.3	88.7
성별	남자	223	14.3	85.7
	여자	237	8.4	91.6
연령	19~24세	181	9.9	90.1
	25~29세	148	13.5	86.5
	30~34세	131	10.7	89.3
거주지	동안구	273	12.1	87.9
	만안구	187	10.2	89.8
직업	학생	258	10.5	89.5
	직장인	98	13.3	86.7
	무직	58	19.0	81.0
	주부	46	2.2	97.8

- 부채(빚)의 액수를 살펴보면, ‘100만원~500만원 미만’이 37.2%로 가장 많고, ‘500만원~1,000만원 미만’ 25.6%, ‘1,000만원 이상’ 20.9% 순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100만원 미만	7	16.3
100만원 ~ 500만원 미만	16	37.2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11	25.6
1,000만원 이상	9	20.9
합계	43	100.0

*무응답 9명

문18-1	귀하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2개까지 선택)
-------	---------------------------------------

- 부채의 원인에 대한 1순위 응답결과 ‘교육비(학비등록금)’이 60.8%로 가장 높고, ‘생활비(월세, 교통, 통신, 식사, 학원교재, 육아, 의류미용, 여가유희문화 등)’ 31.4%, ‘생활용품구입비(자동차, 가구, 가전 등)’ 3.9% 등으로 나타남
- 부채의 원인에 대한 2순위 응답결과 ‘생활비(월세, 교통, 통신, 식사, 학원교재, 육아, 의류미용, 여가유희문화 등)’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비(주택구입,보증금,전세금 등)’ 24.3%, ‘교육비’와 ‘부채상환’이 각각 10.8%로 동일하게 나타남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생활비(월세, 교통, 통신, 식사, 학원교재, 육아, 의류미용, 여가유희문화 등)	16	31.4	16	43.2
주거비(주택구입, 보증금, 전세금 등)	1	2.0	9	24.3
생활용품구입비(자동차, 가구, 가전 등)	2	3.9	—	—
교육비(학비등록금)	31	60.8	4	10.8
의료비	—	—	2	5.4
결혼비용(예단, 혼수, 출산 등)	—	—	2	5.4
부채상환	—	—	4	10.8
창업자금 마련	1	2.0	—	—
합계	51	100.0	37	100.0

*무응답 1순위 1명, 2순위 15명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1순위)】

- 성별로는 남자, 여자 모두 교육비라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남자 62.5%, 여자 57.9%), 다음으로는 부채를 진 두 번째 이유로는 생활비임(남자 28.1%, 여자 36.8%)
- 연령별로는 19~24세의 경우 교육비 58.8%, 생활비 41.2%로 100%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해 부채를 지게 되는데 반해 25~29세는 교육비 60.0%, 생활비 20.0%, 생활용품비 10.0%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63.0%가 교육비로 인해 부채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인의 경우도 교육비로 인한 부채 비율이 75.0%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생활비	주거비	생활용품 구입비	교육비	창업자금 마련
전체		51	31.4	2.0	3.9	60.8	2.0
성별	남자	32	28.1	3.1	3.1	62.5	28.1
	여자	19	36.8	0.0	5.3	57.9	36.8
연령	19~24세	17	41.2	0.0	0.0	58.8	0.0
	25~29세	20	20.0	5.0	10.0	60.0	5.0
	30~34세	14	35.7	0.0	0.0	64.3	0.0
거주지	동안구	32	21.9	0.0	6.3	68.8	3.1
	만안구	19	47.4	5.3	0.0	47.4	0.0
직업	학생	27	29.6	0.0	3.7	63.0	3.7
	직장인	12	25.0	0.0	0.0	75.0	0.0
	무직	11	36.4	9.1	9.1	45.5	0.0
	주부	1	100.0	0.0	0.0	0.0	0.0

5. 현재 포기 및 향후 예상되는 불가능한 사항 (중복응답)

문19	귀하는 현재 포기하고 있거나 향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

- 생애 주요과업 중 안양시 청년들이 현재 포기하고 있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내집 마련’이 26.5%로 가장 높고, ‘출산’ 20.7%, ‘결혼’ 17.5%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연애	162	13.2
결혼	215	17.5
출산	255	20.7
내집 마련	326	26.5
대인관계	23	1.9
인정적인 일자리	129	10.5
학업	26	2.1
없음	94	7.6
합계	1,230	100.0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는 28.4%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이 ‘결혼’(21.3%)로 나타남. 이에 반해 여자의 경우에는 ‘출산’을 포기한다는 비율이 26.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내 집 마련’(24.4%)으로 나타나 남녀 간에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내 집 마련’(24.4%)과 ‘결혼’(20.9%)의 순으로 포기한데 반해 직장인과 무직의 경우 ‘내 집 마련’과 ‘출산’의 순으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내 집 마련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비율이 무직의 경우 학생이나 직장인보다 더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대인관 계	안정 적인 일자리	학업	없음
전체		1,230	13.2	17.5	20.7	26.5	1.9	10.5	2.1	7.6
성별	남자	652	11.2	21.3	15.6	28.4	1.8	11.5	2.9	7.2
	여자	578	15.4	13.1	26.5	24.4	1.9	9.9	0.7	8.1
연령	19~24세	430	10.0	17.0	17.7	23.7	2.1	14.2	1.9	13.5
	25~29세	435	14.9	15.9	25.7	27.4	1.6	9.2	1.6	3.7
	30~34세	365	14.8	20.0	18.4	28.8	1.9	8.5	2.2	5.5
거주지	동안구	600	13.5	16.0	19.0	23.2	2.7	10.0	2.0	13.7
	만안구	630	12.9	18.9	22.4	29.7	1.1	11.4	1.7	1.9
직업	학생	516	7.2	20.9	18.2	24.4	2.3	8.9	2.1	15.9
	직장인	343	14.3	18.4	20.1	25.4	1.7	13.4	3.5	3.2
	무직	232	14.7	15.5	22.4	28.9	2.2	15.9	0.0	0.4
	주부	139	30.2	5.8	28.8	33.1	0.0	2.2	0.0	0.0

6. 결혼에 대한 생각

문20	귀하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응답자들 중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6.0%로 나타남. 반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하지 말아야 한다’ 6.0%+‘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9%)은 23.9%, 긍정적인 의견은 (‘하는 것이 좋다’ 17.5%+‘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12.7%) 30.2%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하지 말아야 한다	30	6.0
하지 않는 것이 좋다	90	17.9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232	46.0
하는 것이 좋다	88	17.5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64	12.7
합계	504	100.0

*무응답 96명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성별기준 남자, 여자 모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32.5%, 59.8%로 높게 나타났고, 남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3.1%, 여자는 ‘하는 것이 좋다’ 17.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높게 나타났고, 19~24세 인 경우 ‘하는 것이 좋다’가 20.9%로 나타났지만, 25~29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17.3%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에 연령별 차이가 나타남
- 거주지별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는 동안구보다 만안구에서 상대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남
- 결혼에 대한 생각에 있어 학생, 무직보다 직장인과 주부인 경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8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전체		504	6.0	17.9	46.0	17.5	12.7
성별	남자	255	8.6	23.1	32.5	17.3	18.4
	여자	249	3.2	12.4	59.8	17.7	6.8
연령	19~24세	191	5.2	19.4	41.4	20.9	13.1
	25~29세	162	5.6	17.3	51.2	15.4	10.5
	30~34세	151	7.3	16.6	46.4	15.2	14.6
거주지	동안구	285	2.8	9.5	50.5	24.9	12.3
	만안구	219	10.0	28.8	40.2	7.8	13.2
직업	학생	272	5.1	21.0	40.1	24.3	9.6
	직장인	119	9.2	16.8	44.5	10.9	18.5
	무직	67	7.5	17.9	44.8	13.4	16.4
	주부	46	0.0	2.2	87.0	0.0	10.9

7. 걱정 월급 수준

문21	귀하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조사 결과 분석

- 안양시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월급 수준은 ‘200만원~350만원 미만’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0만원~650만원 미만’ 24.8%, ‘350만원~500만원 미만’ 18.8%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200만원 미만	8	1.9
200만원 ~ 350만원 미만	186	43.2
350만원 ~ 500만원 미만	81	18.8
500만원 ~ 650만원 미만	107	24.8
650만원 ~ 800만원 미만	15	3.5
800만원 이상	34	7.9
합계	431	100.0

*무응답 169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적정 월급 수준에 대해 남자, 여자 모두 ‘200만원~350만원 미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37.5%,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200만원~350만원 미만’이 각각 47.5%, 37.9%,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 동안구에서는 ‘200만원~350만원 미만’이 52.3%, 만안구에서는 ‘200만원~350만원 미만’과 ‘500만원~650만원 미만’이 약 31%로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200만원~350만원 미만’이 52.5%로 가장 높고, 직장인, 무직, 주부인 경우 ‘500만원~650만원 미만’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200만원 미만	200만원 ~350만원 미만	350만원 ~500만원 이상	500만원 ~650만원 이상	650만원 ~8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전체		431	1.9	43.2	18.8	24.8	3.5	7.9
성별	남자	251	1.6	37.5	20.3	26.3	4.8	9.6
	여자	180	2.2	51.1	16.7	22.8	1.7	5.6
연령	19~24세	198	3.0	47.5	21.2	20.7	1.5	6.1
	25~29세	124	0.8	37.9	13.7	31.5	3.2	12.9
	30~34세	109	0.9	41.3	20.2	24.8	7.3	5.5
거주지	동안구	239	3.3	52.3	19.7	19.7	0.8	4.2
	만안구	192	0.0	31.8	17.7	31.3	6.8	12.5
직업	학생	263	2.7	52.5	17.9	14.4	2.3	10.3

조사 결과 분석

	직장인	111	0.9	29.7	20.7	39.6	5.4	3.6
	무직	53	0.0	28.3	18.9	41.5	5.7	5.7
	주부	4	0.0	0.0	25.0	75.0	0.0	0.0

8. 부모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

문22	귀하의 아버님의 교육수준은 어떠합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의 아버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6.8%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28.4%, ‘중학교 졸업’이 21.3%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초등학교 졸업	17	2.9
중학교 졸업	126	21.3
고등학교 졸업	277	46.8
대학교 졸업	168	28.4
대학원 이상	4	0.7
합계	592	100.0

*무응답 8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 아버님의 교육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 52.4%, ‘대학교 졸업’ 31.6%,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40.7%, ‘중학교 졸업’ 31.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와 30~34세는 ‘고등학교 졸업’(47.6%, 53.3%) > ‘대학교 졸업’(38.7%, 23.4%) 순으로 나타났고, 25~29세는 ‘고등학교 졸업’(39.8%) > ‘중학교 졸업’(33.7%) 순으로 조사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와 만안구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 교육 수준의 아버님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 직장인, 무직은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49.3%, 45.7%, 51.5%, 주부는 ‘중학교 졸업’ 68.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전체		592	2.9	21.3	46.8	28.4	0.7
성별	남자	307	3.9	11.7	52.4	31.6	0.3
	여자	285	1.8	31.6	40.7	24.9	1.1
연령	19~24세	212	2.8	9.9	47.6	38.7	0.9
	25~29세	196	3.6	33.7	39.8	21.9	1.0
	30~34세	184	2.2	21.2	53.3	23.4	0.0
거주지	동안구	318	1.9	13.2	53.5	30.2	1.3
	만안구	274	4.0	30.7	39.1	26.3	0.0
직업	학생	278	1.1	4.0	49.3	44.6	1.1
	직장인	162	5.6	28.4	45.7	19.8	0.6
	무직	101	4.0	33.7	51.5	10.9	0.0
	주부	51	2.0	68.6	27.5	2.0	0.0

문23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응답결과 ‘중하’ 수준이 42.2%로 가장 높았고, ‘중중’ 39.0%, ‘중상’ 12.5%, ‘하’ 5.1% 등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상	7	1.2
중상	74	12.5
중중	231	39.0
중하	250	42.2
하	30	5.1
합계	592	100.0

*무응답 8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 응답자는 부모님의 지위가 ‘중중’이라는 의견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중하’ 47.2%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중중’이 47.4%로 가장 높은 반면, 25~29세와 30~34세는 ‘중하’가 각각 50.5%, 4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조사 결과 분석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중중’ 38.5%, 만안구는 ‘중하’ 48.4%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직업별로는 학생인 경우 ‘중중’ 52.3%, 그 외 직업군에서는 ‘중하’라는 인식이 두드러짐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상	중상	중중	중하	하
전체		592	1.2	12.5	39.0	42.2	5.1
성별	남자	306	0.7	12.7	41.8	37.6	7.2
	여자	286	1.7	12.2	36.0	47.2	2.8
연령	19~24세	213	0.9	17.4	47.4	29.6	4.7
	25~29세	196	0.5	8.7	34.7	50.5	5.6
	30~34세	183	2.2	10.9	33.9	48.1	4.9
거주지	동안구	317	2.2	18.3	38.5	36.9	4.1
	만안구	275	0.0	5.8	39.6	48.4	6.2
직업	학생	279	2.2	17.2	52.3	22.6	5.7
	직장인	161	0.0	9.3	31.7	52.8	6.2
	무직	101	1.0	6.9	27.7	60.4	4.0
	주부	51	0.0	7.8	11.8	80.4	0.0

IV. 문화 활성화

1. 여가 및 문화활동

문24	귀하가 현재 가장 즐기고 있는 여가생활은 무엇입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이 즐기는 여가생활 중 ‘여행, 관광’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포츠 관람’ 16.3%, ‘문화예술 공연관람’ 15.9%, ‘휴식 및 수면’ 15.8% 순서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스포츠 활동	14	2.4
스포츠 관람	96	16.3
문화예술 공연관람	94	15.9
봉사활동	4	0.7
자기계발, 독서	25	4.2
여행, 관광	133	22.5
사교, 유흥	39	6.6
컴퓨터, 앱 게임	52	8.8
TV시청	29	4.9
휴식, 수면	93	15.8
종교활동	11	1.9
합계	590	100.0

*무응답 10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는 ‘문화예술 공연관람’ 20.7%, ‘스포츠 관람’ 18.7% 순이고, 여자는 ‘여행 및 관광’ 33.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휴식, 수면’이 18.2%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휴식, 수면’이 22.2%로 가장 높고, 25~29세와 30~34세는 ‘여행 및 관광’이 각각 34.2%, 21.2%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휴식, 수면’이 19.9%, 만안구는 ‘여행 및 관광’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휴식, 수면’이 22.3%로 가장 높고, 직장인과 주부는 각각

조사 결과 분석

23.8%, 81.6%로 ‘여행 및 관광’, 무직은 ‘스포츠 관람’이 37.4%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스포츠 활동	스포츠 관람	문화 예술 공연 관람	봉사 활동	자기 계발, 독서	여행, 관광	사교, 유흥	컴퓨터, 앱 게임	TV 시청	휴식, 수면	종교 활동
전체		590	2.4	16.3	15.9	0.7	4.2	22.5	6.6	8.8	4.9	15.8	1.9
성 별	남자	305	4.3	18.7	20.7	1.0	4.3	12.8	5.9	12.5	3.9	13.4	2.6
	여자	285	0.4	13.7	10.9	0.4	4.2	33.0	7.4	4.9	6.0	18.2	1.1
연 령	19~24세	216	3.2	13.0	13.0	0.9	4.6	13.4	10.6	9.7	6.5	22.2	2.8
	25~29세	190	3.2	15.8	17.4	0.0	4.2	34.2	1.6	6.8	4.7	10.5	1.6
	30~34세	184	0.5	20.7	17.9	1.1	3.8	21.2	7.1	9.8	3.3	13.6	1.1
거 주 지	동안구	316	2.8	13.3	13.0	0.3	4.7	16.5	9.2	12.3	6.0	19.9	1.9
	만안구	274	1.8	19.7	19.3	1.1	3.6	29.6	3.6	4.7	3.6	10.9	1.8
직 업	학생	282	3.2	4.6	19.9	0.7	5.3	11.3	11.3	12.1	6.7	22.3	2.5
	직장인	160	3.1	26.3	17.5	1.3	1.9	23.8	2.5	9.4	2.5	10.0	1.9
	무직	99	0.0	37.4	10.1	0.0	6.1	23.2	3.0	3.0	5.0	11.1	1.0
	주부	49	0.0	8.2	0.0	0.0	2.0	81.6	0.0	0.0	2.0	6.1	0.0

문25	귀하는 평소 문화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의 평소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이 60.0%, ‘만족’ 23.8%, ‘매우 만족’ 6.9%로 대체적으로 문화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41	6.9
만족	141	23.8
보통	356	60.0
불만족	47	7.9
매우 불만족	8	1.3
합계	593	100.0

*무응답 7명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남녀 모두 ‘보통’ 이 56.4%, 64.0%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19~24세에서 3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화생활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에서 44.5%가 문화생활에 만족하는데 반해 만안구는 문화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14.6%에 불과함
- 직업별로는 학생과 직장인은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무직인 경우 14.1%가 문화생활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93	6.9	23.8	60.0	7.9	1.3
성별	남자	307	6.5	25.7	56.4	9.8	1.6
	여자	286	7.3	21.7	64.0	5.9	1.0
연령	19~24세	216	7.9	32.9	47.7	10.2	1.4
	25~29세	193	5.2	17.1	67.9	8.3	1.6
	30~34세	184	7.6	20.1	66.3	4.9	1.1
거주지	동안구	319	11.3	33.2	49.2	4.7	1.6
	만안구	274	1.8	12.8	72.6	11.7	1.1
직업	학생	283	11.0	37.1	42.4	7.4	2.1
	직장인	160	5.0	15.6	71.3	8.1	0.0
	무직	99	2.0	11.1	72.7	12.1	2.0
	주부	51	0.0	0.0	98.0	2.0	0.0

문26	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결과 ‘영화, 영상’ 이 43.8%로 가장 선호가 높았고, ‘미술’ 16.2%, ‘미디어’ 15.6%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축제	63	10.7
음악	72	12.2
미술	96	16.2
영화, 영상	259	43.8
미디어	92	15.6
문학	9	1.5
합계	591	100.0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선호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남녀모두 ‘영화, 영상’ 관련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35.7%, 여자 52.4%로 여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영화, 영상’ 관련 활동에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19~24세는 ‘음악’ 17.5%, 24~29세는 ‘미술’ 20.4%, 30~34세는 ‘미디어’ 25.1% 순으로 선호하고 있음
- 거주지별, 직업별 모두 ‘영화, 영상’ 관련 활동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고, 그 밖에 ‘음악’, ‘미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축제	음악	미술	영화, 영상	미디어	문학
전체		591	10.7	12.2	16.2	43.8	15.6	1.5
성별	남자	305	10.2	15.1	17.0	35.7	20.0	2.0
	여자	286	11.2	9.1	15.4	52.4	10.8	1.0
연령	19~24세	217	17.1	17.5	16.1	35.5	11.5	2.3
	25~29세	191	6.8	8.9	20.4	51.3	11.0	1.6
	30~34세	183	7.1	9.3	12.0	45.9	25.1	0.5
거주지	동안구	316	15.5	16.1	12.7	43.0	10.8	1.9
	만안구	275	5.1	7.6	20.4	44.7	21.1	1.1
직업	학생	283	17.3	19.8	7.4	38.5	14.8	2.1
	직장인	159	5.0	8.8	26.4	39.6	18.9	1.3
	무직	98	6.1	2.0	31.6	38.8	20.4	1.0
	주부	51	0.0	0.0	3.9	96.1	0.0	0.0

조사 결과 분석

문27	귀하가 평소 여가를 잘 즐기지 못하실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평소 안양시 청년들이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가 46.5%로 가장 높고, ‘시간이 부족해서’ 25.3%, ‘게을러서(귀찮아서)’ 12.6%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272	46.5
시간이 부족해서	148	25.3
여가시설이 부족해서	5	0.9
여가정보가 부족해서	5	0.9
관심이 없어서	34	5.8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11	1.9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4	0.7
게을러서(귀찮아서)	74	12.6
피곤해서	32	5.5
합계	585	100.0

*무응답 15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39.5%), 여자(53.9%) 모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로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한계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이 부족해서’가 각각 30.2%, 20.1%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가 각각 39.8%, 56.5%,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거주지와 직업별로도 비용문제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답하였고, 그 밖에 학생은 게으르거나 귀찮아서 라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시간이 부족 해서	여가 시설이 부족 해서	여가 정보가 부족 해서	관심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 압박감 으로 인해	게을 러서 (귀찮 아서)	피곤 해서
전체		585	46.5	25.3	0.9	0.9	5.8	1.9	0.7	12.6	5.5
성별	남자	301	39.5	30.2	0.7	0.7	6.0	3.0	0.7	14.3	5.0
	여자	284	53.9	20.1	1.1	1.1	5.6	0.7	0.7	10.9	6.0
연령	19~24세	216	39.8	31.5	0.9	0.9	6.5	0.5	0.5	13.0	6.5
	25~29세	191	56.5	16.8	0.0	1.0	3.1	3.7	1.0	13.1	4.7
	30~34세	178	43.8	27.0	1.7	0.6	7.9	1.7	0.6	11.8	5.1
거주지	동안구	311	39.2	33.8	0.6	1.3	3.2	2.6	0.6	11.9	6.8
	만안구	274	54.7	15.7	1.1	0.4	8.8	1.1	0.7	13.5	4.0
직업	학생	281	44.5	34.5	0.4	1.4	2.1	1.4	0.7	7.5	7.5
	직장인	158	38.6	21.5	2.5	0.6	8.2	1.9	0.6	19.6	6.3
	무직	96	43.8	17.7	0.0	0.0	11.5	3.1	1.0	21.9	1.0
	주부	50	88.0	0.0	0.0	0.0	8.0	2.0	0.0	2.0	0.0

문28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청년층을 대변하는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양시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층을 대변하는 문화 1순위에서는 ‘모바일 문화(SNS 등)’이 7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중문화’ 13.0%, ‘취업준비문화’와 ‘축제문화’가 각각 5.6%로 나타났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혼족문화’도 2.7%로 나타남
- ‘모바일 문화(SNS 등)’은 2순위에서도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축제문화’ 25.2%, ‘취업준비문화’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축제문화’는 3순위에서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족문화’ 15.9%, ‘모바일 문화(SNS 등)’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대중문화	77	13.0	37	6.4	34	6.0
모바일 문화(SNS 등)	428	72.2	319	55.4	74	13.1
취업준비문화	33	5.6	41	7.1	30	5.3
축제문화 (버스킹, 카페, 음주 등)	33	5.6	145	25.2	319	56.3
덕후문화	6	1.0	11	1.9	20	3.5
혼족문화	16	2.7	23	4.0	90	15.9
합계	593	100.0	576	100.0	567	100.0

*무응답 1순위 7명, 2순위 24명, 3순위 33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1순위) 】

- 청년층을 대변하는 문화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직업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모바일문화 > 대중문화 > 취업준비문화 > 축제문화 > 혼족문화 > 덕후문화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대중문화	모바일 문화	취업준비 문화	축제문화	덕후문화	혼족문화
전체		593	13.0	72.2	5.6	5.6	1.0	2.7
성별	남자	306	17.3	64.7	7.8	6.5	0.3	3.3
	여자	287	8.4	80.1	3.1	4.5	1.7	2.1
연령	19~24세	216	12.0	72.2	4.6	6.5	0.9	3.7
	25~29세	193	11.9	75.6	5.7	5.2	0.5	1.0
	30~34세	184	15.2	68.5	6.5	4.9	1.6	3.3
거주지	동안구	318	14.5	69.5	2.8	8.2	1.6	3.5
	만안구	275	11.3	75.3	8.7	2.5	0.4	1.8
직업	학생	282	12.8	70.6	5.3	6.4	2.1	2.8
	직장인	161	12.4	70.2	8.1	5.6	0.0	3.7
	무직	99	19.2	68.7	5.1	5.1	0.0	2.0
	주부	51	13.0	72.2	5.6	5.6	1.0	2.7

V. 현안 및 정책인식

1. 청년들의 어려움과 삶 만족도

문29	귀하는 청년으로서 현재 귀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비 마련’ 23.9%,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 14.4%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안정적 일자리 마련	200	33.9
생활비 마련	141	23.9
대학 등 교육문제	81	13.7
주거, 임대 등의 주거비용 조달	3	0.5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	85	14.4
문화활동 기회의 부족	26	4.4
결혼 및 연애	13	2.2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의 차별	40	6.8
결혼에 대한 압박	1	0.2
합계	590	100.0

*무응답 10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안양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남자는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43.0%, 여자는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비 마련’, ‘대학 등 교육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큰 비중을 차지함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고 (19~24세 39.2%, 25~29세 30.3%, 30~34세 31.7%),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특히, 25~29세의 경우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이 25.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조사됨
- 거주지별, 직업별로도 ‘안정적 일자리 마련’과 ‘생활비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부의 경우에만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이 82.0%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안정적 일자리 마련	생활비 마련	대학 등 교육 문제	주거, 임대 등의 주거 비용 조달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	문화 활동 기회의 부족	결혼 및 연애	외모, 출신 대학, 성별 등의 차별	결혼에 대한 압박
전체		590	33.9	23.9	13.7	0.5	14.4	4.4	2.2	6.8	0.2
성별	남자	307	43.0	29.0	10.7	0.0	3.3	3.6	2.3	7.8	0.3
	여자	283	24.0	18.4	17.0	1.1	26.5	5.3	2.1	5.7	0.0
연령	19~24세	212	39.2	28.3	17.9	0.9	0.0	5.2	2.8	5.7	0.0
	25~29세	195	30.3	27.2	9.7	0.0	25.6	1.5	1.5	3.6	0.5
	30~34세	183	31.7	15.3	13.1	0.5	19.1	6.6	2.2	11.5	0.0
거주 지	동안구	315	28.3	21.3	21.3	0.6	9.8	5.1	3.2	10.5	0.0
	만안구	275	40.4	26.9	5.1	0.4	19.6	3.6	1.1	2.5	0.4
직업	학생	279	38.4	22.2	24.0	1.1	0.0	6.1	2.9	5.4	0.0
	직장인	160	34.4	28.8	6.3	0.0	16.3	5.0	2.5	6.3	0.6
	무직	101	33.7	30.7	3.0	0.0	17.8	0.0	1.0	13.9	0.0
	주부	50	8.0	4.0	2.0	0.0	82.0	2.0	0.0	2.0	0.0

문30	귀하는 현재 본인의 삶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안양시 청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 45.2%, ‘만족’ 25.7%, ‘불만족’ 25.5% 순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이 유사한 수준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12	2.0
만족	152	25.7
보통	267	45.2
불만족	151	25.5
매우 불만족	9	1.5
합계	591	100.0

*무응답 9명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안양시 청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남자(만족 28.7%)가 여자(만족 26.7%)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는 만족이 32.7%로 나타난 반면, 25~29세와 30~34세에서는 불만족이 각각 39.9%, 26.1%로 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주부를 제외한 다른 직업군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91	2.0	25.7	45.2	25.5	1.5
성별	남자	306	1.6	27.1	53.3	16.3	1.6
	여자	285	2.5	24.2	36.5	35.4	1.4
연령	19~24세	214	0.9	31.8	50.9	13.6	2.8
	25~29세	193	2.1	22.8	35.2	38.3	1.6
	30~34세	184	3.3	21.7	48.9	26.1	0.0
거주지	동안구	320	3.4	29.1	45.0	20.6	1.9
	만안구	271	0.4	21.8	45.4	31.4	1.1
직업	학생	278	2.9	25.2	56.5	12.9	2.5
	직장인	162	1.2	30.2	40.7	27.2	0.6
	무직	100	2.0	30.0	40.0	27.0	1.0
	주부	51	0.0	5.9	7.8	86.3	0.0

2. 청년정책 인지

문30_1	귀하는 안양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생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안양시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취·창업 및 일자리 제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29.7%로 가장 우선되어야하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빈곤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청년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16.4%,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13.8%,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청년대상 건강검진’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청년대상 건강검진	73	12.3
청년의 심리와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42	7.1
취·창업 및 일자리제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176	29.7
빈곤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청년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97	16.4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82	13.8
주거지원 및 임대지원	72	12.1
결혼 및 육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1	8.6
합계	593	100.0

*무응답 7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생활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남자는 ‘고용안정 정책’ 32.1%, ‘청년빈곤 지원 프로그램’ 20.1%, ‘문화생활지원 프로그램’ 16.2%, 여자는 ‘고용안정 정책’ 27.0%, ‘주거지원 및 임대지원’ 16.5%, ‘결혼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16.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고용안정 정책’ 41.4%, ‘청년빈곤 지원 프로그램’ 17.7%, ‘주기적 건강검진’ 14.4%, 25~29세는 ‘고용안정 정책’ 22.1%, ‘주거지원 및 임대지원’ 19.0%, ‘청년빈곤 지원 프로그램’ 17.4%, 30~34세는 ‘고용안정 정책’ 24.0%, ‘문화생활 지원 프로그램’ 22.4%, ‘청년빈곤 지원 프로그램’ 13.7% 순으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고용안정 정책’ 34.9%, ‘문화생활 지원 프로그램’ 14.2%, ‘청년빈곤 지원 프로그램’ 13.2%, ‘주거지원 및 임대지원’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만안구는 ‘고용안정 정책’ 23.6%, ‘청년빈곤 지원 프로그램’ 20.0%, ‘주기적 건강검진’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과 직장인은 ‘고용안정 정책’이 각각 44.1%, 21.9%로 가장 우선해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무직은 ‘주기적 건강검진’ 24.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는 ‘결혼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이 78.4%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주기적 건강검진	청년의 심리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고용안정 정책	청년빈곤 지원 프로그램	문화생활 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 및 임대지원	결혼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전체		593	12.3	7.1	29.7	16.4	13.8	12.1	8.6
성별	남자	308	14.0	7.8	32.1	20.1	16.2	8.1	1.6
	여자	285	10.5	6.3	27.0	12.3	11.2	16.5	16.1
연령	19~24세	215	14.4	9.8	41.4	17.7	9.8	6.5	0.5
	25~29세	195	12.8	4.1	22.1	17.4	10.3	19.0	14.4
	30~34세	183	9.3	7.1	24.0	13.7	22.4	11.5	12.0
거주지	동안구	318	9.4	9.4	34.9	13.2	14.2	10.4	8.5
	만안구	275	15.6	4.4	23.6	20.0	13.5	14.2	8.7
직업	학생	281	5.0	11.0	44.1	20.3	10.7	7.1	1.8
	직장인	160	20.0	5.0	21.9	16.9	15.6	18.8	1.9
	무직	101	24.8	3.0	15.8	11.9	23.8	17.8	3.0
	주부	51	3.9	0.0	2.0	2.0	5.9	7.8	78.4

문31	귀하는 안양시 청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3가지)
-----	--

- 안양시 청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에 대한 응답결과 1순위에는 ‘생활비 지원정책’ 42.9%, ‘주거,임대,주택정책’ 19.0%, ‘학비, 등록, 용자’ 15.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취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은 2순위에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육 프로그램’ 19.4%, ‘학비, 등록, 용자’ 관련 정책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순위에서도 ‘취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문화, 행사’ 13.8%, ‘다양한 정보제공’ 9.7%, ‘생활비 지원정책’ 9.5%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안양시 청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1,2,3순위에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한 ‘취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주거, 임대, 주택정책	112	19.0	21	3.7	24	5.7
생활비 지원정책	253	42.9	77	13.5	40	9.5
학비, 등록금, 용자	92	15.6	88	15.4	32	7.6
교육프로그램	22	3.7	111	19.4	30	7.1
취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81	13.7	122	21.3	86	20.4
창업지원	5	0.8	20	3.5	20	4.8
청년활동 공간	5	0.8	21	3.7	38	9.0
새로운 교류기회 확대	4	0.7	75	13.1	34	8.1
문화, 행사	6	1.0	13	2.3	58	13.8
다양한 정보제공	6	1.0	18	3.1	41	9.7
출산, 양육지원	4	0.7	6	1.0	18	4.3
합계	590	100.0	572	100.0	421	100.0

*무응답 1순위 10명, 2순위 28명, 3순위 17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1순위) 】

- 안양시 청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 ‘생활비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남자 38.6%, 여자 47.5%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생활비지원정책’ 33.8%, ‘학비용자’ 20.2%, ‘취업 및 일자리창출’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24세 이상은 ‘생활비 지원정책’, ‘주거, 임대, 주택정책’이 우선인 의견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에서는 ‘생활비 지원정책’, ‘주거, 임대, 주택정책’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주거, 임대, 주택 정책	생활비 지원 정책	학비, 융자	교육 프로 그램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청년 활동 공간	새로운 교류기 회 확대	문화, 행사	다양한 정보 제공	출산, 양육 지원
전체		590	19.0	42.9	15.6	3.7	13.7	0.8	0.8	0.7	1.0	1.0	0.7
성별	남자	306	23.9	38.6	15.0	3.6	14.4	1.0	1.0	0.3	0.3	1.3	0.7
	여자	284	13.7	47.5	16.2	3.9	13.0	0.7	0.7	1.1	1.8	0.7	0.7
연령	19~24세	213	14.6	33.8	20.2	3.3	19.7	1.9	0.9	1.4	1.9	1.9	0.5
	25~29세	195	15.9	58.5	11.8	4.6	8.2	0.0	0.5	0.0	0.5	0.0	0.0
	30~34세	182	27.5	36.8	14.3	3.3	12.6	0.5	1.1	0.5	0.5	1.1	1.6
거주지	동안구	317	19.6	31.2	18.6	4.1	17.7	1.3	1.6	1.3	1.6	1.9	1.3
	만안구	273	18.3	56.4	12.1	3.3	9.2	0.4	0.0	0.0	0.4	0.0	0.0
직업	학생	277	15.9	26.7	25.6	3.6	20.9	1.4	1.1	1.1	1.8	1.1	0.7
	직장인	161	22.4	47.8	10.6	6.8	8.1	0.6	0.0	0.6	0.6	1.2	1.2
	무직	101	28.7	55.4	4.0	1.0	8.9	0.0	2.0	0.0	0.0	0.0	0.0
	주부	51	5.9	90.2	0.0	0.0	2.0	0.0	0.0	0.0	0.0	2.0	0.0

문32	귀하는 안양시 우선적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2가지)
-----	--

- 안양시 청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것에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자 1순위에는 ‘졸업 유예자’ 41.2%,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미취업자’ 28.6%, 2순위에는 ‘예비창업자’ 20.1%, ‘장기(1년 이상)실업자’ 19.2%, ‘여성 미취업자’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	166	28.6	50	9.2
졸업유예자	239	41.2	36	6.7
장기(1년 이상) 실업자	58	10.0	104	19.2
여성 미취업자	26	4.5	94	17.4
은둔형 미취업자	14	2.4	25	4.6
구직단념자	15	2.6	44	8.1
무연고 청년	5	0.9	27	5.0
예비 창업자	9	1.6	109	20.1
일부 청년만 대상	48	8.3	52	9.6
합계	580	100.0	541	100.0

* 무응답 1순위 20명, 2순위 5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1순위) 】

- 안양시 청년 중 정책의 가장 우선적 대상에 대한 성별 의견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졸업유예자’가 각각 38.3%, 44.3%로 응답비율이 높고, ‘취약계층(저소득,저학력)미취업자’, ‘장기(1년 이상)실업자’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는 ‘취약계층(저소득,저학력)미취업자’ 36.8%, ‘졸업유예자’ 28.7%, ‘일부 청년만 대상’ 14.8%의 순으로 우선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25세 이상은 ‘졸업유예자’를 우선해야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36.9%의 가장 높은 비율로 ‘취약계층(저소득,저학력) 미취업자’를 우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안구는 60.9%가 ‘졸업유예자’인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은 ‘취약계층(저소득,저학력)미취업자’ 우선을 44.2%가 응답하였고, 직장인, 무직, 주부는 ‘졸업유예자’에 각각 53.9%, 51.5%, 88.2%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경우 ‘구직 단념자’에 대하여 5.9%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취약 계층 (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	졸업 유예자	장기 (1년 이상) 실업자	여성 미취업자	은둔형 미취업자	구직 단념자	무연고 청년	예비 창업자	일부 청년 대상
전체		580	28.6	41.2	10.0	4.5	2.4	2.6	0.9	1.6	8.3
성별	남자	300	28.7	38.3	12.3	4.7	2.3	3.0	1.0	1.3	8.3
	여자	280	28.6	44.3	7.5	4.3	2.5	2.1	0.7	1.8	8.2
연령	19~24세	209	36.8	28.7	8.1	3.8	1.9	1.4	1.4	2.9	14.8
	25~29세	191	22.5	56.0	7.3	5.2	0.5	1.6	1.0	1.0	4.7
	30~34세	180	25.6	40.0	15.0	4.4	5.0	5.0	0.0	0.6	4.4
거주지	동안구	314	36.9	24.5	13.1	5.7	1.6	1.9	1.6	2.9	11.8
	만안구	266	18.8	60.9	6.4	3.0	3.4	3.4	0.0	0.0	4.1
직업	학생	276	44.2	21.7	8.3	4.7	1.8	0.0	1.4	2.9	14.9
	직장인	154	18.2	53.9	12.3	1.9	3.2	5.2	0.6	0.0	4.5
	무직	99	16.2	51.5	16.2	8.1	4.0	4.0	0.0	0.0	0.0
	주부	51	0.0	88.2	0.0	3.9	0.0	5.9	0.0	2.0	0.0

문33	귀하는 현재 정부 또는 안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사업들을 알고 계십니까?
-----	---

■ 현 정부 및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 관련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의 96.3%가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알고 있다	20	3.7
모른다	516	96.3
합계	536	100.0

*무응답 64명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정부 또는 안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모른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536	3.7	96.3
성별	남자	269	5.6	94.4
	여자	267	1.9	98.1
연령	19~24세	195	5.1	94.9
	25~29세	173	2.3	97.7
	30~34세	168	3.6	96.4
거주지	동안구	298	4.4	95.6
	만안구	238	2.9	97.1
직업	학생	276	5.1	94.9
	직장인	133	3.0	97.0
	무직	78	0.0	100.0
	주부	49	4.1	95.9

문33-1	귀하가 어떤 경로로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이 정책을 알게 된 경로는 ‘포스터, 팜플렛 등의 각종 홍보물’이 45.0%로 가장 높고, ‘시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35.0%, ‘학교 내 게시판’ 15.0%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버스 광고	1	5.0
시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7	35.0
포스터, 팜플렛 등의 각종 홍보물	9	45.0
학교 내 게시판	3	15.0
기타	—	—
합계	20	100.0

조사 결과 분석

문33-2	귀하는 현재 정부 또는 안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사업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현 정부 또는 안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 대상 사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57.1%, 충분하다는 의견이 42.9%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충분하다	6	42.9
충분하지 않다	8	57.1
합계	14	100.0

*무응답 6명

문34	귀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등에 관한 안양시 청년들의 인식조사 결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31.3%)와 ‘바람직하지 않다’(29.4%)가 60.7%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84	31.3
바람직하지 않다	173	29.4
바람직하다	209	35.5
매우 바람직하다	22	3.7
합계	588	100.0

*무응답 12명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배당 정책에 대한 안양시 청년들의 인식조사 결과 성별에 따라 남녀 모두 각각 62.8%, 58.4%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4~29세에서 74.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조사됨
- 거주지별로 동안구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안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의 비율이 82.5%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은 66.2%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직장인, 무직, 주부는 각각 79.4%, 87.0%, 98.0%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전체		588	31.3	29.4	35.5	3.7
성별	남자	304	27.6	35.2	33.9	3.3
	여자	284	35.2	23.2	37.3	4.2
연령	19~24세	212	13.2	28.3	50.5	8.0
	25~29세	196	39.3	35.2	25.0	0.5
	30~34세	180	43.9	24.4	29.4	2.2
거주지	동안구	315	21.3	20.6	52.7	5.4
	만안구	273	42.9	39.6	15.8	1.8
직업	학생	278	11.2	22.7	58.3	7.9
	직장인	160	40.0	39.4	20.6	0.0
	무직	100	43.0	44.0	13.0	0.0
	주부	50	92.0	6.0	2.0	0.0

VI. 정주의식

1. 출생 및 거주 관련 현황

문35	귀하는 안양시에서 출생하셧습니까?
-----	--------------------

■ 안양시 출생이 아닌 응답자가 82.8%로 안양시 출생 17.2%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102	17.2
아니다	490	82.8
합계	592	100.0

*무응답 8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안양시 출생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약 82% 이상이 안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성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전체		592	17.2	82.8
성별	남자	307	23.8	76.2
	여자	285	10.2	89.8
연령	19~24세	214	22.9	77.1
	25~29세	195	12.8	87.2
	30~34세	183	15.3	84.7
거주지	동안구	318	11.6	88.4
	만안구	274	23.7	76.3
직업	학생	279	24.0	76.0
	직장인	162	16.0	84.0
	무직	100	7.0	93.0
	주부	51	3.9	96.1

조사 결과 분석

문35-1 귀하가 타 시에서 안양시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안양시 출생이 아닌 응답자들 중 안양시로 오게 된 이유로는 ‘직장 및 학교로 인해’가 46.8%로 가장 높고, ‘부모님을 따라서’ 29.5%, ‘결혼 및 자녀양육, 교육으로 인해’ 20.9% 등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님을 따라서	124	29.5
직장 및 학교로 인해	197	46.8
결혼 및 자녀양육, 교육으로 인해	88	20.9
주거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8	1.9
서울로의 이동이 수월해서	4	1.0
안양시의 지원혜택이 많아서	—	—
합계	421	100.0

*무응답 6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성별로는 남자는 ‘부모님을 따라서’가 44.6%, 여자는 ‘직장 및 학교로 인해’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의 65.6%가 ‘직장 및 학교로 인해’ 안양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직장 및 학교로 인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의 경우 ‘결혼 및 자녀양육, 교육으로 인해’ 안양시로 이주해온 비율이 88.6%로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부모님을 따라서	직장 및 학교로 인해	결혼 및 자녀양육, 교육으로 인해	주거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서울로의 이동이 수월해서	안양시의 지원혜택 이 많아서
전체		421	29.5	46.8	20.9	1.9	1.0	—
성별	남자	195	44.6	44.1	6.7	2.6	2.1	—
	여자	226	16.4	49.1	33.2	1.3	0.0	—
연령	19~24세	142	32.4	65.5	0.0	2.1	0.0	—
	25~29세	143	23.1	37.1	35.0	2.1	2.8	—
	30~34세	136	33.1	37.5	27.9	1.5	0.0	—
거주지	동안구	257	22.6	63.8	12.5	0.8	0.4	—
	만안구	164	40.2	20.1	34.1	3.7	1.8	—
직업	학생	207	29.0	71.0	0.0	0.0	0.0	—
	직장인	101	32.7	32.7	26.7	6.9	1.0	—
	무직	69	37.7	24.6	31.9	1.4	4.3	—
	주부	44	11.4	0.0	88.6	0.0	0.0	—

문36	귀하는 안양시에서 얼마간 거주하셨습니다?
-----	------------------------

- 응답자 중 56.8%가 안양시에 ‘5년 미만’으로 거주하였고, ‘20년~25년 미만’이 14.6%, ‘5년~10년 미만’이 12.2%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5년 미만	167	56.8
5년 ~ 10년 미만	36	12.2
10년 ~ 15년 미만	19	6.5
15년 ~ 20년 미만	18	6.1
20년 ~ 25년 미만	43	14.6
25년 이상	11	3.7
합계	294	100.0

*무응답 306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안양시 거주기간에 대한 응답결과 남녀 모두 ‘5년 미만’의 비율이 각각 52.9%, 62.5%로 높게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 ‘20년~25년 미만’이 18.4%, 여자의 경우 ‘5년~10년 미

조사 결과 분석

만'이 10.8% 순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도 '5년 미만'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고 19~24세는 '20년~25년 미만'이 16.3%, 24~29세와 30~34세는 '5년~10년 미만' 거주자가 각각 14.8%, 16.9%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동안구는 '5년 미만' 거주자들이 63.2%로 가장 많고, 만안구는 '20년~25년 미만'이 21.7%로 동안구 보다 높게 나타남
- 모든 직업군에서 '5년 미만' 응답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학생과 직장인은 '20년~25년 미만' 비율이 각각 14.3%, 2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25년 미만	25년 이상
전체		294	56.8	12.2	6.5	6.1	14.6	3.7
성별	남자	174	52.9	13.2	5.7	6.3	18.4	3.4
	여자	120	62.5	10.8	7.5	5.8	9.2	4.2
연령	19~24세	141	59.6	8.5	6.4	7.8	16.3	1.4
	25~29세	88	54.5	14.8	8.0	5.7	11.4	5.7
	30~34세	65	53.8	16.9	4.6	3.1	15.4	6.2
거주지	동안구	174	63.2	12.1	6.9	6.9	9.8	1.1
	만안구	120	47.5	12.5	5.8	5.0	21.7	7.5
직업	학생	203	59.1	8.4	7.4	6.9	14.3	3.9
	직장인	52	48.1	17.3	3.8	3.8	25.0	1.9
	무직	34	55.9	23.5	5.9	5.9	2.9	5.9
	주부	5	60.0	40.0	0.0	0.0	0.0	0.0

2. 안양시 정주의식

문37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안양시는 살기 좋은 곳입니까?
-----	-----------------------------

- 안양시가 살기 좋은 곳인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통이다 63.7%, 아니다 20.9%, 그렇다 15.4%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79.1%는 살기에 좋은 긍정적인 응답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79	15.4
보통이다	326	63.7
아니다	107	20.9
합계	600	100.0

*무응답 88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안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약 52~74% 이상으로 나타났고, 성별기준 남자(16.9%), 연령기준 19~24세(25.4%), 거주지별 동안구(18.8%), 직업별 학생(25.9%)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주부 응답자의 경우에는 85.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체		512	15.4	63.7	20.9
성별	남자	261	16.9	74.7	8.4
	여자	251	13.9	52.2	33.9
연령	19~24세	181	25.4	68.0	6.6
	25~29세	167	11.4	55.1	33.5
	30~34세	164	8.5	67.7	23.8
거주지	동안구	288	18.8	67.4	13.9
	만안구	224	11.2	58.9	29.9
직업	학생	259	25.9	68.3	5.8
	직장인	128	7.8	68.8	23.4
	무직	76	2.6	71.1	26.3
	주부	49	0.0	14.3	85.7

문38	귀하는 5년 이내에 안양시를 떠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	-------------------------------

- 응답자들 중 5년 이내 안양시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잘 모르겠다’가 65.1%, ‘그렇다’가 20.7%, ‘아니다’가 14.2%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102	20.7
아니다	70	14.2
잘 모르겠다	321	65.1
합계	493	100.0

*무응답 107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5년 이내 안양시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제외하고 성별로는 여자인 경우 24.9%로 이동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남자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응답자들 중 28.7%가 안양시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5-29세는 16.4%, 30-34세는 15.7%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응답자의 경우 5년 이내 안양시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30.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493	20.7	14.2	65.1
성별	남자	260	16.9	14.6	68.5
	여자	233	24.9	13.7	61.4
연령	19~24세	181	28.7	16.0	55.2
	25~29세	159	16.4	13.8	69.8
	30~34세	153	15.7	12.4	71.9
거주지	동안구	279	30.5	15.8	53.8
	만안구	214	7.9	12.1	79.9
직업	학생	257	29.6	17.9	52.5
	직장인	123	12.2	9.8	78.0
	무직	77	13.0	11.7	75.3
	주부	36	2.8	8.3	88.9

문38-1 귀하가 안양시를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5년 이내 안양시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 중 안양시를 떠나고 싶은 이유로

조사 결과 분석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37.4%, ‘통학·통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4.2%,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21.2% 등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37	37.4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11	11.1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21	21.2
더 나은 배움,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	3	3.0
더 나은 인적네트워킹을 위해	1	1.0
자녀교육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2	2.0
결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	—
통학·통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4	24.2
합계	99	100.0

*무응답 3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안양시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남녀 모두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가 각각 39.5%, 35.7%로 나타남
- 연령별, 거주지별 역시 모든 집단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 직장인, 무직의 경우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는 의견이 각각 35.6%, 46.7%, 40.0%로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 을 위해	더 나은 배움,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	더 나은 인적네트 워킹을 위해	자녀교육 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통학 ·통근 어려움 해결 위해
전체	99	37.4	11.1	21.2	3.0	1.0	2.0	24.2
성별	남자	43	39.5	9.3	25.6	2.3	0.0	18.6
	여자	56	35.7	12.5	17.9	3.6	1.8	28.6
연령	19~24세	51	37.3	15.7	19.6	2.0	2.0	23.5
	25~29세	26	38.5	0.0	26.9	7.7	0.0	23.1
	30~34세	22	36.4	13.6	18.2	0.0	0.0	27.3
거주지	동안구	82	37.8	13.4	17.1	3.7	1.2	24.4
	만안구	17	35.3	0.0	41.2	0.0	0.0	23.5
직업	학생	73	35.6	11.0	20.5	4.1	1.4	27.4
	직장인	15	46.7	20.0	20.0	0.0	0.0	13.3
	무직	10	40.0	0.0	30.0	0.0	0.0	20.0
	주부	1	0.0	0.0	0.0	0.0	100.0	0.0

문38-2 귀하가 안양시에 계속 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안양시에 계속 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므로’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문화수준에 대한 만족하므로’ 22.2%, ‘가족이 모두 안양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19.0%, ‘현재의 배움과 교육기회에 만족하므로’ 12.7% 등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므로	3	4.8
현재의 문화수준에 만족하므로	14	22.2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므로	22	34.9
현재의 배움과 교육기회에 만족하므로	8	12.7
현재의 인적네트워킹에 만족하므로	4	6.3
가족이 모두 안양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12	19.0
합계	63	100.0

*무응답 7명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안양시에서 계속 생활하는 이유는 남자는 ‘현재 문화수준에 만족하므로’가 25.0%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므로’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와 25~29세는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므로’가 각각 46.2%, 3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30대 이상은 ‘가족 모두가 안양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만안구 모두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므로’ 안양시에 계속 거주한다는 의견이 각각 34.2%, 36.0%로 높게 조사됨
- 직업별로는 학생은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고, 직장인의 경우 가족이 모두 안양시에 살고 있고, 무직은 현재 문화수준에 만족, 주부는 현재 배움과 교육기회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안양시 거주의 주된 이유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므로	현재의 문화수준에 만족하므로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므로	현재의 배움과 교육기회에 만족하므로	현재의 인적 네트워킹에 만족하므로	가족이 모두 안양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63	4.8	22.2	34.9	12.7	6.3	19.0
성별	남자	36	8.3	25.0	22.2	16.7	11.1	16.7
	여자	27	0.0	18.5	51.9	7.4	0.0	22.2
연령	19~24세	26	7.7	26.9	46.2	3.8	3.8	11.5
	25~29세	20	5.0	15.0	35.0	15.0	10.0	20.0
	30~34세	17	0.0	23.5	17.6	23.5	5.9	29.4
거주지	동안구	38	0.0	18.4	34.2	10.5	7.9	28.9
	만안구	25	12.0	28.0	36.0	16.0	4.0	4.0
직업	학생	42	4.8	21.4	42.9	7.1	4.8	19.0
	직장인	11	9.1	9.1	9.1	27.3	9.1	36.4
	무직	9	0.0	44.4	33.3	11.1	11.1	0.0
	주부	1	0.0	0.0	0.0	100.0	0.0	0.0

문39	귀하가 친구들과의 교류 및 문화생활을 이유로 가장 자주 방문하는 도시는 어느 곳입니까?
-----	--

- 응답자 중 58.0%가 친구들과의 교류 및 문화생활을 ‘안양시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서울시’ 23.6%, ‘경기도 내 타시군’ 15.3%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시	134	23.6
경기도 내 타시군	87	15.3
안양시 내	329	58.0
(서울, 경기)를 제외한 타도시	17	3.0
합계	567	100.0

*무응답 33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친구들과의 교류 및 문화생활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생활권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주로 ‘안양시 내’에서 해결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19~24세와 학생 응답자들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내 타시군’, ‘안양시 내’ 등 다양하게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 됨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서울시	경기도 내 타시군	안양시 내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도시
전체		567	23.6	15.3	58.0	3.0
성별	남자	293	23.2	16.0	56.0	4.8
	여자	274	24.1	14.6	60.2	1.1
연령	19~24세	204	34.3	18.1	44.6	2.9
	25~29세	186	18.3	11.8	66.7	3.2
	30~34세	177	16.9	15.8	64.4	2.8
거주지	동안구	309	34.3	23.0	40.5	2.3
	만안구	258	10.9	6.2	79.1	3.9
직업	학생	261	38.7	22.6	36.8	1.9
	직장인	157	14.0	7.6	73.9	4.5
	무직	98	9.2	14.3	72.4	4.1
	주부	51	3.9	3.9	90.2	2.0

VII. 사회, 정치인식과 참여

1. 자신감

문40	아래 항목에 대한 귀하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내 집 마련에 대한 안양시 청년들의 자신감은 ‘전혀 자신없다’ 46.5%, ‘별로 자신없다’ 39.0%로 대체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안양시 청년들의 자신감은 ‘별로 자신없다’ 44.1%, ‘전혀 자신없다’ 27.0%로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자신감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안양시 청년들의 자신감은 ‘별로 자신없다’ 45.1%, ‘전혀 자신없다’ 33.1%로 응답자의 78.2%가 자신없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에 대한 자신감은 ‘별로 자신없다’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5.2%로 나타났고, ‘다소 자신있다’는 의견이 24.8%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안양시 청년들은 4가지 항목에서 모두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구분	내집 마련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육아		취업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자신없다	263	46.5	152	27.0	164	33.1	66	13.2
별로 자신없다	221	39.0	249	44.1	223	45.1	276	55.2
다소 자신있다	64	11.3	125	22.2	85	17.2	124	24.8
매우 자신있다	18	3.2	38	6.7	23	4.6	34	6.8
합계	566	100.0	564	100.0	495	100.0	500	100.0

*무응답 내 집 마련 34명, 연애 및 결혼 36명, 출산 및 육아 105명, 취업 100명

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유형별 분석]

- 내 집 마련 대한 자신감 조사결과 모든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군에서 ‘자신없다’라는 의견이 약 80-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임
-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는 성, 연령, 거주지, 직업군 특성별 모두에게서 자신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자신없다	별로 자신없다	다소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내 집 마련	전체		566	46.5	39.0	11.3	3.2
	성별	남자	289	48.4	38.8	9.3	3.5
		여자	277	44.4	39.4	13.4	2.9
	연령	19~24세	206	31.6	48.5	17.5	2.4
		25~29세	187	60.4	31.0	5.3	3.2
		30~34세	173	49.1	36.4	10.4	4.0
	거주지	동안구	307	30.0	48.5	16.0	5.5
		만안구	259	66.0	27.8	5.8	0.4
	직업	학생	271	33.9	43.9	17.3	4.8
		직장인	154	48.1	39.6	9.7	2.6
		무직	94	56.4	40.4	2.1	1.1
		주부	47	93.6	6.4	0.0	0.0
연애 및 결혼	전체		564	27.0	44.1	22.2	6.7
	성별	남자	289	20.1	48.8	24.6	6.6
		여자	275	34.2	39.3	19.6	6.9
	연령	19~24세	206	13.6	44.7	31.6	10.2
		25~29세	187	35.8	44.4	16.0	3.7
		30~34세	171	33.3	43.3	17.5	5.8
	거주지	동안구	307	20.2	41.4	26.4	12.1
		만안구	257	35.0	47.5	17.1	0.4
	직업	학생	271	13.7	40.2	36.2	10.0
		직장인	154	29.9	51.9	12.3	5.8
		무직	94	30.9	59.6	8.5	1.1
		주부	45	88.9	8.9	0.0	2.2

조사 결과 분석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자신감 조사결과 주부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군에서 ‘자신없다’라는 의견이 약 70% 이상의 비율로 조사되었음
-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도 ‘별로 자신없다’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자신없다	별로 자신없다	다소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출산 및 육아	전체		495	33.1	45.1	17.2	4.6
	성별	남자	285	36.1	41.8	17.2	4.9
		여자	210	29.0	49.5	17.1	4.3
	연령	19~24세	209	34.0	41.1	19.1	5.7
		25~29세	140	37.9	44.3	13.6	4.3
		30~34세	146	27.4	51.4	17.8	3.4
	거주지	동안구	281	25.6	45.9	21.7	6.8
		만안구	214	43.0	43.9	11.2	1.9
	직업	학생	270	37.4	36.7	19.6	6.3
		직장인	136	33.1	50.0	13.2	3.7
		무직	79	22.8	63.3	12.7	1.3
		주부	10	0.0	60.0	40.0	0.0
취업	전체		500	13.2	55.2	24.8	6.8
	성별	남자	287	17.4	53.7	23.0	5.9
		여자	213	7.5	57.3	27.2	8.0
	연령	19~24세	211	7.6	53.6	33.2	5.7
		25~29세	140	15.7	55.7	20.0	8.6
		30~34세	149	18.8	57.0	17.4	6.7
	거주지	동안구	283	9.5	50.5	30.4	9.5
		만안구	217	18.0	61.3	17.5	3.2
	직업	학생	273	8.4	46.2	36.6	8.8
		직장인	136	16.9	64.0	12.5	6.6
		무직	79	24.1	67.1	7.6	1.3
		주부	12	8.3	83.3	8.3	0.0

조사 결과 분석

2. 사회인식

문41	청년층의 사회인식에 대한 의견
-----	------------------

1. 사회인식 의견 1

-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견에 ‘아니다’가 70.5%로 ‘그렇다’ 29.5% 보다 높게 나타남
-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에 ‘아니다’ 76.6%, ‘그렇다’ 23.4%로 나타남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리사회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72	29.5	412	70.5	584	100.0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136	23.4	446	76.6	582	100.0

*무응답 ‘우리사회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6명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8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열심히 일하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성별기준 남녀 모두 ‘아니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아니다’라는 응답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거주지별, 직업별로도 우리나라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우리사회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전체		584	29.5	70.5
	성별	남자	300	30.0	70.0
		여자	284	28.9	71.1
	연령	19~24세	210	41.4	58.6
		25~29세	191	24.1	75.9
		30~34세	183	21.3	78.7
	거주지	동안구	315	39.0	61.0
		만안구	269	18.2	81.8
	직업	학생	273	48.4	51.6
		직장인	161	16.8	83.2
무직		99	13.1	86.9	
주부		51	0.0	100.0	
우리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전체		582	23.4	76.6
	성별	남자	298	23.8	76.2
		여자	284	22.9	77.1
	연령	19~24세	210	33.8	66.2
		25~29세	190	14.2	85.8
		30~34세	182	20.9	79.1
	거주지	동안구	314	30.3	69.7
		만안구	268	15.3	84.7
	직업	학생	273	37.7	62.3
		직장인	161	13.0	87.0
무직		98	10.2	89.8	
주부		50	4.0	96.0	

조사 결과 분석

1. 사회인식 의견 2

-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는 의견에 아니다가 52.3%, 그렇다가 47.7%로 나타남
-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님의 지위 보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아니다가 61.1%, 그렇다가 38.9%로 나타남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279	47.7	306	52.3	585	100.0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지위보다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227	38.9	356	61.1	583	100.0

*무응답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5명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지위보다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7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에 성별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아니다'가 58.0%로 높고, 여자 응답자들은 '그렇다'가 53.7%로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고, 사회적 성취에 있어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성취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가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령별 응답결과 19~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별로는 동안구는 '아니다'가 57.0%로 높은데 반하여 만안구는 '그렇다'라는 의견이 53.2%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사회적 성취에 있어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성에 대해 모든 연령, 거주지, 직업 응답자들 중 노력보다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두드러진 응답결과가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전체		585	47.7	52.3
	성별	남자	300	42.0	58.0
		여자	285	53.7	46.3
	연령	19~24세	211	31.3	68.7
		25~29세	191	58.6	41.4
		30~34세	183	55.2	44.8
	거주지	동안구	316	43.0	57.0
		만안구	269	53.2	46.8
	직업	학생	273	25.3	74.7
		직장인	162	55.6	44.4
		무직	99	74.7	25.3
		주부	51	90.2	9.8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지위보다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전체		583	38.9	61.1
	성별	남자	298	44.0	56.0
		여자	285	33.7	66.3
	연령	19~24세	211	43.6	56.4
		25~29세	190	34.2	65.8
		30~34세	182	38.5	61.5
	거주지	동안구	315	45.4	54.6
		만안구	268	31.3	68.7
	직업	학생	273	39.6	60.4
		직장인	162	43.2	56.8
		무직	98	44.9	55.1
		주부	50	10.0	90.0

조사 결과 분석

1. 사회인식 의견 3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그렇다가 74.2%, 아니다가 25.8%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
- 주변사람에 대한 신뢰 의견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65.7%, 신뢰하지 않는다 34.3%로 신뢰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38	74.2	152	25.8	590	100.0
나는 주변 사람들을 신뢰한다	387	65.7	202	34.3	589	100.0

*무응답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명
'나는 주변 사람들을 신뢰한다' 11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견에 모든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율로 높게 나타남
- 주변사람에 대한 신뢰 의견에서는 남녀 모두 각각 57.4%, 74.5%로 신뢰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도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직업별로는 학생과 주부 응답자의 경우 주변사람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직장인은 50:50으로, 무직은 '신뢰한다' 43.4% '신뢰하지 않는다' 56.6%로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체		590	74.2	25.8
	성별	남자	304	65.5	34.5
		여자	286	83.6	16.4
	연령	19~24세	214	70.6	29.4
		25~29세	195	72.8	27.2
		30~34세	181	80.1	19.9
	거주지	동안구	316	80.1	19.9
		만안구	274	67.5	32.5
	직업	학생	280	81.4	18.6
		직장인	160	65.0	35.0
		무직	99	58.6	41.4
		주부	51	94.1	5.9
나는 주변 사람들을 신뢰한다	전체		589	65.7	34.3
	성별	남자	303	57.4	42.6
		여자	286	74.5	25.5
	연령	19~24세	213	68.1	31.9
		25~29세	195	70.8	29.2
		30~34세	100.0%	57.5	42.5
	거주지	동안구	316	73.7	26.3
		만안구	273	56.4	43.6
	직업	학생	279	79.2	20.8
		직장인	160	50.0	50.0
		무직	99	43.4	56.6
		주부	51	84.3	15.7

조사 결과 분석

1. 사회인식 의견 4

- 협력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견에 그렇다 60.9%, 아니다 39.1%로 나타남
- 소득,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의견에 ‘아니다’라는 의견이 74.1%로
그렇다 25.9% 보다 높게 나타남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힘들더라도 협력할 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360	60.9	231	39.1	591	100.0
내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눠야 한다	153	25.9	438	74.1	591	100.0

*무응답 ‘힘들더라도 협력할 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9명

‘내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눠야 한다’ 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협력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업별 기준 무직인 경우에만 ‘그렇다’ 49.5% ‘아니다’ 50.5%로 협력에 의한 가치창출에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을 알 수 있음
- 협력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던 반면, 소득, 노동시간 감소를 감수하고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든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군에서 ‘아니다’라는 의견이 약 70-80% 이상의 비율로 분석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힘들더라도 협력할 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전체		591	60.9	39.1
	성별	남자	305	65.9	34.1
		여자	286	55.6	44.4
	연령	19~24세	214	73.4	26.6
		25~29세	195	55.9	44.1
		30~34세	182	51.6	48.4
	거주지	동안구	316	69.6	30.4
		만안구	275	50.9	49.1
	직업	학생	280	76.8	23.2
		직장인	161	57.8	42.2
무직		99	49.5	50.5	
주부		51	5.9	94.1	
내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눠야 한다	전체		591	25.9	74.1
	성별	남자	305	28.5	71.5
		여자	286	23.1	76.9
	연령	19~24세	214	30.8	69.2
		25~29세	195	23.1	76.9
		30~34세	182	23.1	76.9
	거주지	동안구	316	35.4	64.6
		만안구	100.0%	14.9	85.1
	직업	학생	280	35.4	64.6
		직장인	161	20.5	79.5
무직		99	19.2	80.8	
주부		51	3.9	96.1	

조사 결과 분석

1. 사회인식 의견 5

-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견에 아니다 72.9%, 그렇다 27.1%로 나타남
- 미래에 대한 꿈과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의견에 그렇다 69.2%, 아니다 30.8%로 나타남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리 세대는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160	27.1	430	72.9	590	100.0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하고 싶은 일이 많다	409	69.2	182	30.8	591	100.0

*무응답 '우리 세대는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10명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하고 싶은 일이 많다' 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전 분야에서 우리 세대가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미래에 대한 꿈과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응답에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전 분야에서 걸쳐 과반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우리 세대는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전체		590	27.1	72.9
	성별	남자	305	30.8	69.2
		여자	285	23.2	76.8
	연령	19~24세	213	25.4	74.6
		25~29세	195	24.6	75.4
		30~34세	182	31.9	68.1
	거주지	동안구	315	34.3	65.7
		만안구	275	18.9	81.1
	직업	학생	280	29.6	70.4
		직장인	160	23.1	76.9
무직		99	33.3	66.7	
주부		51	13.7	86.3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전체		591	69.2	30.8
	성별	남자	305	63.9	36.1
		여자	286	74.8	25.2
	연령	19~24세	214	60.7	39.3
		25~29세	195	81.0	19.0
		30~34세	182	66.5	33.5
	거주지	동안구	316	67.1	32.9
		만안구	275	71.6	28.4
	직업	학생	280	65.7	34.3
		직장인	161	70.2	29.8
무직		99	68.7	31.3	
주부		51	86.3	13.7	

1. 사회인식 의견 6

- 현재 또는 미래에 가치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의견에 그렇다 50.1%, 아니다 49.9%로 나타남
- 청년세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기회가 적다는 의견에 그렇다 51.8%, 아니다 48.2%로 나타남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나는 현재 또는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	295	50.1	294	49.9	589	100.0
청년세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적다	306	51.8	285	48.2	591	100.0

*무응답 ‘나는 현재 또는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살 수 있다’ 11명
 ‘청년세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적다’ 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현재 또는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할 가능성에 대해 남자는 ‘그렇다’ 54.8% ‘아니다’ 45.2%인 반면, 여자는 ‘아니다’ 54.9%로 부정적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고,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가 적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는 19~24세는 현재 또는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은데 반하여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회는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25세 이상은 약 50~60%의 비율로 현재 또는 미래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부정적이지만 기회는 적지 않다고 생각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만안구는 60.9%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직업별로 학생인 경우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외 직업군은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기회에 대한 의견은 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회가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나는 현재 또는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	전체		589	50.1	49.9
	성별	남자	305	54.8	45.2
		여자	284	45.1	54.9
	연령	19~24세	213	61.0	39.0
		25~29세	195	47.7	52.3
		30~34세	181	39.8	60.2
	거주지	동안구	315	59.7	40.3
		만안구	274	39.1	60.9
	직업	학생	280	73.9	26.1
		직장인	160	38.8	61.3
		무직	99	25.3	74.7
		주부	50	2.0	98.0
청년세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적다	전체		591	51.8	48.2
	성별	남자	305	58.4	41.6
		여자	286	44.8	55.2
	연령	19~24세	214	59.3	40.7
		25~29세	195	49.7	50.3
		30~34세	182	45.1	54.9
	거주지	동안구	316	58.5	41.5
		만안구	275	44.0	56.0
	직업	학생	280	58.2	41.8
		직장인	161	52.8	47.2
		무직	99	55.6	44.4
		주부	51	5.9	94.1

조사 결과 분석

1. 사회인식 의견 7

- 해외이주민 유입으로 문화가 풍부해진다는 의견에 아니다가 59.4%로 그렇다 40.6%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 확대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그렇다 54.7%, 아니다 45.3%로 나타남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이주민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풍부해진다	239	40.6	350	59.4	589	100.0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322	54.7	267	45.3	589	100.0

*무응답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이주민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풍부해진다’ 11명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11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해외이주민과 문화, 국가경쟁력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 남녀 모두 해외이주민에 의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남자 55.4%, 여자 63.7%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남자는 ‘아니다’가 56.1%로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그렇다’가 66.2%로 반대양상이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해외이주민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가 풍부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두드러졌으나, 25세 이상인 경우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 확대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약 38~45% 이상)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거주지와 직업별로는 해외이주민에 의한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 확대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국가경쟁력 간 관계는 서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더 높게 조사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이주민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풍부해진다	전체	589	40.6	59.4
	성별	남자	44.6	55.4
		여자	36.3	63.7
	연령	19~24세	47.6	52.4
		25~29세	35.9	64.1
		30~34세	37.4	62.6
	거주지	동안구	43.9	56.1
		만안구	36.7	63.3
	직업	학생	46.6	53.4
		직장인	40.0	60.0
		무직	42.4	57.6
		주부	5.9	94.1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전체	589	54.7	45.3
	성별	남자	43.9	56.1
		여자	66.2	33.8
	연령	19~24세	48.6	51.4
		25~29세	61.5	38.5
		30~34세	54.4	45.6
	거주지	동안구	56.4	43.6
		만안구	52.7	47.3
	직업	학생	50.2	49.8
		직장인	51.3	48.8
		무직	53.5	46.5
		주부	92.2	7.8

조사 결과 분석

1. 사회인식 의견 8

- 해외이주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견에 아니다 77.4%, 그렇다 22.6%로 나타남
- 해외이주민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의견에 아니다 61.9%, 그렇다 38.1%로 나타남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이주민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	133	22.6	456	77.4	589	100.0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이주민들은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225	38.1	365	61.9	591	100.0

*무응답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이주민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 11명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이주민들은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해외이주민과 경제·일자리 관련 성별 응답결과 남녀 모두 해외이주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약 70%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의견에도 남자는 ‘아니다’ 55.4%, ‘그렇다’ 44.6%, 여자는 ‘아니다’ 68.8%, ‘그렇다’ 31.2%로 조사됨
- 모든 연령대에서 약 80% 가까이 해외이주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만안구 모두 ‘해외이주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에 각각 73.9%, 81.5%로 응답하였고, 만안구의 경우 해외이주민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의견에 대해 ‘아니다’가 56.7%로 ‘그렇다’ 43.3%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다만, ‘아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지 않음
- 직업별로는 해외이주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매우 높고, 일자리 측면에서 직장인과 무직인 경우 학생과 주부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그렇다	아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이주민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	전체		589	22.6	77.4
	성별	남자	305	23.6	76.4
		여자	284	21.5	78.5
	연령	19~24세	212	27.8	72.2
		25~29세	195	18.5	81.5
		30~34세	182	20.9	79.1
	거주지	동안구	314	26.1	73.9
		만안구	275	18.5	81.5
	직업	학생	279	31.5	68.5
		직장인	160	13.8	86.3
무직		99	18.2	81.8	
주부		51	9.8	90.2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이주민들은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전체		591	38.1	61.9
	성별	남자	305	44.6	55.4
		여자	285	31.2	68.8
	연령	19~24세	213	45.1	54.9
		25~29세	195	35.9	64.1
		30~34세	182	32.4	67.6
	거주지	동안구	315	33.7	66.3
		만안구	275	43.3	56.7
	직업	학생	279	39.4	60.6
		직장인	161	44.1	55.9
무직		99	41.4	58.6	
주부		51	5.9	94.1	

3. 정치적 관심도

문42	귀하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을 조사해본 결과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35.7%, ‘매우 관심이 있다’ 1.8%, ‘별로 관심이 없다’ 33.9%, ‘전혀 관심이 없다’ 28.6%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관심이 없다	159	28.6
별로 관심이 없다	188	33.9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198	35.7
매우 관심이 있다	10	1.8
합계	555	100.0

*무응답 45명

[응답자 유형별 분석]

- 정치적 관심 수준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 남자인 경우 64.0%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36.0%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60.7%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39.3%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남녀 모두 정치에 관심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가장 높은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19~24세 연령대로 40% 이상이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 만안구 모두 ‘정치적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만안구의 경우 68.7%로 동안구(57.7%) 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주부인 경우 89.4%의 높은 비율로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 직종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약 35~40% 수준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전체		555	28.6	33.9	35.7	1.8
성별	남자	303	30.7	33.3	34.3	1.7
	여자	252	26.2	34.5	37.3	2.0
연령	19~24세	215	20.5	34.9	42.3	2.3
	25~29세	168	32.7	30.4	35.7	1.2
	30~34세	172	34.9	36.0	27.3	1.7
거주지	동안구	312	21.8	35.9	39.4	2.9
	만안구	243	37.4	31.3	30.9	0.4
직업	학생	281	17.1	40.9	39.1	2.8
	직장인	142	28.2	31.7	38.7	1.4
	무직	85	34.1	29.4	36.5	0.0
	주부	47	89.4	6.4	4.3	0.0

문43	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정책위원회 또는 청년정책서포터즈 등 직접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	---

- 안양시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정치참여 기회가 있는 경우 참여 의사가 ‘있다’ 56.1%, 참여의사가 ‘없다’ 43.9%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309	56.1
없다	242	43.9
합계	551	100.0

*무응답 49명

【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정치적 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참여의사가 있다’ 57.3%, 여자는 54.6%로 모두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참여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30~34세가 62.4%로 참여의사가 가장 높음
- 거주지별로는 동안구의 경우 51.6%의 응답자가 정치적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

조사 결과 분석

났고, 만안구의 경우 66.0%로 정치적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정치적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인 경우 61.8%가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551	56.1	43.9
성별	남자	300	57.3	42.7
	여자	251	54.6	45.4
연령	19~24세	214	50.5	49.5
	25~29세	167	56.9	43.1
	30~34세	170	62.4	37.6
거주지	동안구	310	48.4	51.6
	만안구	241	66.0	34.0
직업	학생	280	38.2	61.8
	직장인	142	67.6	32.4
	무직	83	73.5	26.5
	주부	46	97.8	2.2

제4장 제언



제언

1. 대학생 등 청년 취업

안양시 청년들의 인식

-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취업의 성공요소로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 졸업이라고 인식함
- 취업 및 구직활동, 진로설정의 어려움으로 ‘과도한 스펙 경쟁’ 제시
-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 가운데, 학생, 무직자의 경우 대부분 취업을 진로로 하고 있으며, 25세 이상의 경우 창업 및 프리랜서에 대한 의견도 많음



제언

- 다양한 통로의 취업정보 제공
- 다양한 분야의 취업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창업 및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진로 정보 제공
- 청년들의 진로와 적성 파악을 위한 지원 필요
 - 1) 체계적인 진로상담 및 사전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분야 멘토 연결
 - 2) 안양시 내 입주 기업들과 연계를 통한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를 위한 진로체험 등 인턴십 기회 제공
 - 3)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료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2. 주거복지

안양시 청년들의 인식

- 안양시 청년들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주거비 조달을 위해 대출 등 빚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음
- 안양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관련 정책에 대해 청년쉐어하우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가운데,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19~24세는 청년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과 청년쉐어하우스, 25~29세는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및 관련 교육확대, 30~34세는 청년쉐어하우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



제언

- 안양시 청년들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청년쉐어하우스, 청년을 위한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임차인 보호제도의 강화 및 관련 교육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 － 청년층 희망주택 공급(공공임대주택, 쉐어하우스 형태)

제언

3. 결혼 등 생활안정

안양시 청년들의 인식

- 안양시 청년들은 학업 및 생활을 위해 경우 부모, 형제 혹은 친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아르바이트 등 자력이나 대출 등을 통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가 있는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부채의 주된 원인은 생활비와 교육비임
- 안양시 청년들이 현재 혹은 미래에 포기하는 것으로는 내집 마련 → 출산 → 결혼 → 연애 → 안정적인 일자리 순으로 나타남
 - 주거문제와 출산, 결혼, 취업문제가 연계됨



제언

- 청년정책은 주거안정화 정책과 결혼·출산 장려 정책, 일자리 정책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청년들의 상태를 고려한 정책연계 고려 필요
 -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과 결혼·출산 장려정책을 연계하여 상생효과 도모
 - 무직자 및 대학생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주거안정화 정책을 연계하여 상생효과 도모

4. 청년문화

안양시 청년들의 인식

- 안양시 청년들이 즐기고 있는 여가 및 활동은 여행, 관광 → 스포츠 관람 → 문화예술 공연관람 → 휴식, 수면 순으로 나타남
- 평소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고, 다음이 시간 부족임
- 한편 청년층을 대변하는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바일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중문화임



제언

- SNS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정보 제공
 - 특히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양이라는 지역성과 정체성 관련 문화 및 축제 정보 제공 및 공동체 형성

제언

4. 기타(현안 및 정책인식)

안양시 청년들의 인식

- 안양시 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생활비 마련이라고 함
- 안양시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생활정책으로 취·창업 및 일자리제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빈곤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청년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봄
- 이와 함께 안양시 청년들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생활비 지원정책, 주거·임대·주택정책, 학비·등록금 융자,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교육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안양시에서 우선적 지원대상은 졸업유예자,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 장기(1년 이상) 실업자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현 정부 및 안양시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 관련 사업에 대해 상당수(96.3%)의 청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0.7%로 과반수가 넘음



제언

- 안양시 청년정책의 우선 대상 선정 및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정책 우선 대상은 졸업유예자(취업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시킴), 취약계층 미취업자, 장기(1년 이상)실업자 등의 순으로 이들의 취·창업 및 일자리 제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정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그 형태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아닌 다른 형태를 고려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필요
- 현 정부 및 안양시의 정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청년문화는 모바일 문화로 대변된다는 점을 활용, SNS 등 모바일의 적극적 활용

부록

